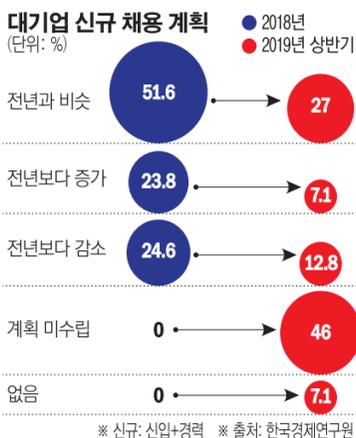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제무대서 대기업 편취 논란 4

김병철 號 신한금융 'IB 본색' 시동 14

대기업 7%만 “상반기 채용확대”...더 좁아진 취업문

“신입 늘리겠다” 작년 18.8%서 폭 46% “신규채용 계획조차 못세워” 채용규모도 작년보다 8.7% 줄 듯 대내외 경제악화·최저임금 부담 커



올 상반기 대기업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 5곳 중 1곳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곳은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쳤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따라 채용 규모를 확대했던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고용 확대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6개사 중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7.1%에 불과했다.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무려 46.0%에 달했으며, 19.9%는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따라 채용을 늘리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 채용 규모 확대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지난해 8월 환경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18.8%가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했지만, 올해 이 비율은 11.7%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기업의 대졸 신입공채 채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62개사의 상반기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도 지난해 106명에서 올해 상반기 9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움(30.7%)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2.7%)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20.5%) △이직 등 인력 유출 감소(14.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신규 채용 여력 감소(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와 국내 경영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추광호 환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는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축소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많아 채용시장이 좋지 않다”면서 “구직자들은 올해 수시채용 비중이 늘고 기업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우수 스타트업과 우수 인재가 함께하는 스타트업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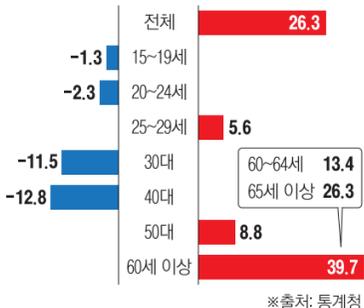
‘고용 착시’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2월 취업자 13개월새 최대폭 증가 60세 이상 전년보다 39만 명 늘어 ‘경제허리’ 30·40대 24만 명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대규모 노인 일자리 공급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명 증가한 결과다. 반면 30·40대 취업자는 24만 명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률도 59.4%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농림어업에서 11만7000명, 정보통신업에서 7만2000명 각각 늘었다. 제조업(-15만1000명), 도·소매업(-6만 명), 금융·보험업(-3만8000명) 등에서 크게 줄었다.

2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 명,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이 29만9000명, 일용직은 4만 명 각각 증가했다. 임시직도 감소 폭이 전월 21만2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7000명 증가했다. 1983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임시직 감소 폭 축소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효과로 보인다.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일자리로, 계약기간 3~12개월의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30·40대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30대는 취업자가 11만5000명 줄고 고용률은 0.5%P 하락했다. 40대도 취업자가 12만8000명 줄고, 고용률은 0.2%P 하락했다. 30·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6만 명) 등에서 고용난이 이어진 결과다.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8000명 늘고, 실업률은 4.7%로 0.1%P 상승했다. 30·40대 실업률은 각각 0.3%P, 0.2%P 상승했다. 50대도 실업자가 4만3000명 늘어 실업률이 0.7%P 올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취업 못한 청년들 “창업이라도...”

1월 신설법인 9944개 역대 2번째 청년층 2815개로 4년연속 증가세

올해 1월 새로 설립된 법인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법인 설립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9944개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97개) 줄어든 것이지만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1월 신설 법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24.5%)에 대한 기저 효과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025개(20.4%) △제조업 1922개(19.3%) △건설업 1195개(12.0%) △부동산업 1063개(1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16.6%) 기저 효과에도 음식료품과 기계·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3.7%(69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5개(10.9%) △정보통신업 41개(5.2%) △교육서비스업 28개(26.4%)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165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만든 법인은 △정보통신업 55개(20.8%) △제조업 16개(3.5%)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67개) 늘었다. 특히 1월 기준으로는 2016년 2269개였던 청년층 창업은 올해 2815개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취업난 등으로 창업을 택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40대 3392개(34.2%) △50대 2656개(26.7%) 순으로 나타났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당정청, 소득공제율·한도는 현행 유지키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된다. 9번째 기한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도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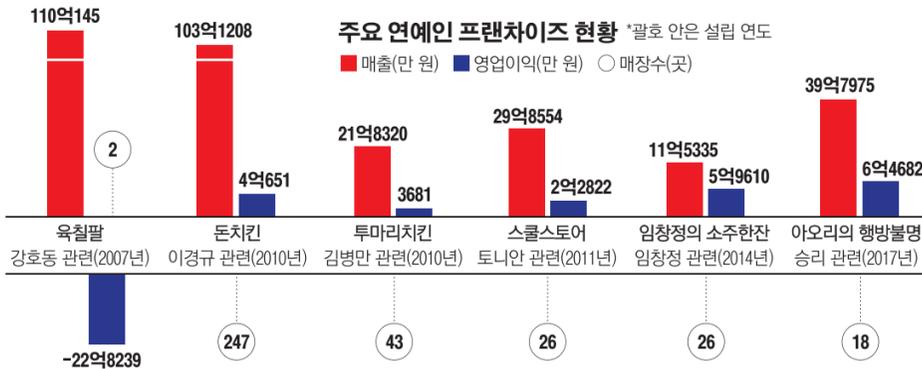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 제외’ 당론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나 된다”며 “3월에는 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4월 법 처리를 목표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승리 라멘집 어찌나... '스타 리스크'에 우는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
성접대 의혹에 사업 위태
연예인 내세운 가맹점
상당수 시장서 자취 감춰
오너리스크보다 더 클 수도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는 수년 전부터 일본 라멘전문점 '아오리의 행방불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왔다.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승리 효과로 초기부터 주목받으며 2017년 기준 연 매출 40억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아오리의 행방불명 역시 행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승리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프랜차이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가수, 개그맨, 배우 등 연예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왔다. 승리처럼 직접 본사를 설립하고

브랜드를 론칭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연예인들은 기존 프랜차이즈에 지분을 투자하고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업계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들 브랜드 중 상당수는 이미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가맹점 출점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역사가 긴 연예인 프랜차이즈는 강호동이 출자한 육칠팔로 올해로 설립 12년을 맞았다. 육칠팔은 동명의

구이전문점을 비롯해 백성, 치킨678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육칠팔은 매출이 110억 원대이지만 22억 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예인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매장수가 많은 브랜드는 이경규가 투자한 '돈치킨'이다. 돈치킨은 매장수가 247개, 매출액도 103억 원에 달한다. 돈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배달 전문 브랜드를 추가로 론칭하기도 했다.

개그맨 김병만도 '투마리치킨'으로 치킨 사업에 도전장을 냈지만 매장수는 4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출 역시 21억 원대, 영업이익은 3000만 원대에 그친다.

가장 최근 론칭한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실내 포차 콘셉트를 앞세워 5년여 만에 매장수를 26개로 늘렸다.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매출은 11억 원대이지만 영업이익은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5억9000만 원대에 이른다. 토니안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출범한 스킨스토어는 프리미엄 분식전문점을 표방했지만 매장수는 수년째 정체된 상태다.

이들 브랜드는 현재까지 명맥이 이어지는 사례이지만 사라진 연예인 프랜차이즈는 셀 수 없이 많다. 개그맨 이수근의 이름을 내건 '이수근의 술ZIP'은 원샷잔 등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등 론칭 초기 주목받았다가 이수근의 도박 혐의가 불거지자 시장에서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연예인 프랜차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연예인 개인의 리스크가 브랜드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너 리스크보다 더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이상현 창업경영연구소장은 "브랜드 경쟁력과 상관없이 연예인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브랜드 명운이 결정되기 쉬운 연예인 프랜차이즈는 창업계에서 도박과 같은 존재"라며 "해당 브랜드의 정체성과 매뉴경쟁력, 운영노하우 등 기본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기업은행, 새 사외이사로 '농협맨' 선택한 까닭은

금융위에 신총식 前 농협지주 회장·김세직 교수 임명 요청
'모피아' 아닌 금융인사 발탁... 노조 '낙하산 반대' 영향도

IBK기업은행이 사외이사로 정통 '농협맨'을 선택하자,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총식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를 신입 사외이사로 제청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당초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4인 체제였다. 하지만 2017년 4월 조용 사외이사

가 6년의 임기를 끝낸 이후 2년간 공백 상태로 3인 체제로 유지해 왔다. 그 후 몇 차례 사외이사 교체를 반복했지만, 동시에 친정부 보은인사 논란을 겪어왔다. 사외이사 이력 중에 옛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이면서 당시 정권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 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2017년 이종구 전 사외이사 후임으로 온 김세형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사외이사는 보은인사 논란이 확산되자 선임된 지 1년도 안 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퇴임한 성효용 사외이사 후임으로 김정훈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 겸 운영위원이 선임됐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전·현직 금융기관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때문에 신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제청한 배경에는 사외이사 선임 때마다 불거지는 친정권 보은인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관료 출신이 아닌 경제·금융 전문 인사를 발탁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걸며 박정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신 전 회장은 농협금융 출범 이후 초대 회장에 오르며 농협에서만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1979년 농협에 입사해 주요 요직을 거쳐 농협금융지주 초대 회장과 농협은행장을 맡은 정통 농협맨이다. 현재는 NH투자증권 고문을 맡고 있다.

신 전 회장은 당시 '회장·행장 분리'를 주장하며 취임 100일 만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농협금융의 사업구조 개편(신·경 분리) 마무리를 위해 정부와 협상하는 과



신총식 전 회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정에서 신 전 회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官)과의 거리가 멀었다.

김세직 후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친 뒤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주 중 금융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23개 기업 대상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삼성 빼고 대부분 '반대'... 한진그룹엔 '초강수' 예고

국민연금이 12일 홈페이지에 현대건설 등 23개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개해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의결권 사전공개인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사전 공개한 기업은 총 11개사다. 가장 큰 특징은 삼성그룹이 예봉을 피한 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는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면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2017년까지 삼성전자 주총에서 '거수기'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상훈 이사회 의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달라진 태도를 보여 올해 의결권 향방이 불확실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 일부 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회 보수한도액 승인 등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협로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인 박성득, 김영기 씨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사, 감독의무 및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LG·신세계 등 11개사에 '반대표' 현대건설·위아 '이사 선임' 빨간불

행동주의 펀드와 갈등 중인 2개사 주주권 행사 항방 '초미의 관심'

현대건설은 2017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013~2016년 8827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32억62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대위아의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도 반대한다. 전기 경영성과 대비 과도한 수준을 당기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위아는 2017년 적자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 556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사 보수액 승인도 반대가 예고됐다.

LG 계열사 중에는 LG하우시스와 LG상사가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연금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의장이 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삭제한 LG하우시스의 정관변경에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연금은 "이사회 의장과 CEO의 직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칠 수 있게 하여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LG하우시스와 LG상사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도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주요 그룹 의결권 사전 공개

그룹	기업	주요 안건	찬성/반대	지분율(%)
현대차 그룹	현대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10.57
	현대위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반대	12.59
	현대글로비스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반대	10.19
LG그룹	LG하우시스	정관변경,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반대	12.18
	LG상사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반대	13
	LG유플러스	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등	찬성	9.95
	LG생활건강	정관변경, 사내외 이사 선임 등	찬성	7.2
삼성그룹	LG화학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	찬성	9.51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등	찬성	8.95
	삼성SDI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찬성	11.62
	삼성전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찬성	10.4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심 기업

기업	주총일	주요 이슈	지분율(%)
현대자동차	3월 22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이사 선임, 배당 갈등	8.7
현대모비스	3월 22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이사 선임, 배당 갈등	10.1
한진칼	3월 27일	행동주의 펀드 KCG와 지배구조 개선 갈등	6.7
대한항공	3월 27일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11.56
롯데케미칼	3월 27일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등	9.08
금호석유화학	3월 29일	박찬구 회장 사내이사 선임	8.45

국민연금은 그 외에도 신세계, 농심, 서흥, 한미약품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신세계, 농심,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도 반대할 예정이다. 또한 풍산과 서흥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사전 공개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더 많은 기업이 남아있다. 국민연

은 약 1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일 이후 주총이 열리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는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직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22일 주총을 앞둔 현대자동차와 27일 주총을 개최할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이다. 이들 기업은 행동주의

펀드와 갈등을 벌이고 있어 국민연금의 찬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서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대형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단위: 조 원)

사업명	착공 예정 시기	비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4.1	(2019년 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반기)
평택-익산 고속도로	3.7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 ▶ 착공(9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1.8	지자체 협의 ▶ 착공(3/4분기)
동북선 경전철	1.6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0월)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0.8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7월)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	0.5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	0.1	

총 투자비 12.6조 원
* 출처: 기획재정부

광명~서울고속도로, 올 여름 '첫 삽' "12.6兆 규모 민자사업 연내착공"

총 24개 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확대·일자리 '속도전'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가 17조5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12조6000억 원 규모의 13개 사업은 연내 착공하고, 2020년 이후 착공하는 11개(4조9000억 원) 사업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다. 대형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우선 관계 부처·지자체와의 이견과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 대형 교통사업 5개를 연내 착공한다. 사업 규모는 12조 원이다. 3조7000억 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사업은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다. 이에 농림식품부의 농지, 산림청의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 뒤 9월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 원)도 주민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

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 설득 및 지자체와 협의를 끝낸 뒤 올해 3분기 착공하기로 했다.

13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 원)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고,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1000억 원), 경찰청 어린이집·폴리텍기숙사·병영시설 등 6개(5000억 원)도 각각 내달 첫 삽을 뜨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조기 추진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최장 3년이 소요되는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최장 26개월인 실시협약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착공 목표가 당초보다 21개월 줄어든 2021년 12월로 정해졌고, 부산시 승학 터널은 13개월 단축한 2021년 12월로 결정됐다. 부산항신항 용동 2단계 등 6개 사업(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은 12개월 당겨진 2020년 12월 착공한다. 용인시 에코타운은 2020년 8월(이하 단축 기간·4개월),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는 2020년 9월(2개월), 위례-신사선 철도는 2022년 12월(6개월) 착공한다. 이들 사업 규모는 4조9000억 원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애플 0.1주만 주세요

업계 최초, 신한금융투자가 시작합니다

소수점 해외주식구매 서비스

기존 1주 단위로 거래됐던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 우량주식 37개 종목으로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세요!

글로벌 자산배분 전문가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모바일(MTS)미국 기준 수수료는 0.25%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644호(2018-11-23-2019-11-21)

<공익활동> <재능나눔>

노인 일자리, 월 10만원·27만원짜리가 80%

정부 지원 65세 이상 일자리 분석해보니

노인 15만명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서 '취업자'로 전환 월 65만원 사회서비스형 생겨... 고용지표 노인이 떠받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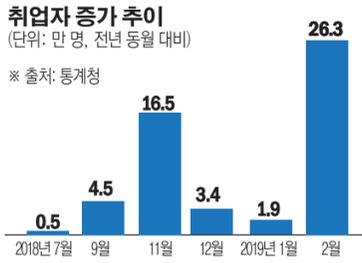
무너지는 고용지표를 노인들이 떠받치는 시대가 됐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3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했던 상용직을 제외하면 고용자 편중현상이 뚜렷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7000명 늘었는데, 대부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에 흡수됐다. 반대로 15~59세 취업자는 13만4000명 감소했다. 인구가 24만9000명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지표의 고용자 의존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먼저 인구구조의 급변이다. 15~59세 인구는 줄었지만, 60세 이상 인구는 53만 9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에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가



26만2000명 급증했다. 인구 증가분(30만 9000명)의 84.8%에 달하는 규모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7.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15만 명 이상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노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크게 시니어인턴십, 공익활동, 재능나눔, 인력파견형, 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엔 지원 규모가 6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확대됐다. 단 전체 노인 일자리의

약 8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의 활동비가 각각 월 10만 원, 27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월 65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추가됐다.

노인 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고를 냈고, 그때 지원했던 사람들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부진 산업의 업황 회복이 아닌 재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노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예전 같은 취업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여명은 느는데 민간에는 노인들이 일할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노인 일자리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행 후 임금보전 방안 미흡하면 과태료”

고용부 “임금 감소 막을 것”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3개월→6개월) 시행 후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연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력근로제 설명회를 열고 “임금보전은 탄력근로제 도입 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국장은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당초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법원의 확

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태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선정 기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사노위 합의문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국장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시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9~11월 사업장 604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8곳(17.9%)의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중소 규제 까자”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울부즈만 지방자치단체, 한국규제학회 주최로 ‘중소기업 규제 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가 열렸다. 김부겸(왼쪽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여기구(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봉(두 번째) 중소기업 울부즈만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업, 현장의 눈높이에서 규제 해결책을 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형 스마트팜 필리핀 첫 수출... 농업 현대화 지원

한국형 스마트팜이 필리핀에 처음 수출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8일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필리핀 농업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함께 필리핀 토마토 시설팜 개소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에마누엘 피놀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현지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현지 대형유통사(3개소) 및 협동조합(4개소)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설팜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주당 최대 300kg까지 납품할 수 있는 판로도 확보했다.

시설팜은 한국 선진 시설하우스 및 재배 기술 실습을 위한 연구용 시설팜 2동(840㎡)과 농가 시설재배 노하우 습득 및 농가소득 향상, 농가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교육용 시설팜(6718㎡)으로 이뤄졌



농정원은 8일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필리핀 농업부 등과 함께 ‘필리핀 토마토 시설팜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확보, 토마토 품종공동체 구성 및 공동출하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피놀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이날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 등에 토마토 시설팜 구축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국내 재벌, 관료·정치인 포획하고 언론 장악”

김상조, 국제 무대에서 대기업 편취 논란

“경제발전 이어지지 않고 中企 성장 방해 총수일가 5% 지분으로 그룹 지배 문제” 재계 “韓 기업 부정적 이미지 각인 우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재벌그룹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고 기업을 편취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자 역할을 해온 한국 재벌그룹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시간이 갈수록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30대 재벌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는 한

국 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재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평균 5% 내외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나타나 한국 경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지였다.

재계는 우려의 소리를 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한국 재벌그룹 전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이 현지인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구설에 오를 것을 의식한 듯 기조연설 초반에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직자인 김 위원장이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유기 반려견 1위는 푸들... 진돗개 3위

등록 유기견 9만여 마리

지난해 가장 많이 버려진 견종(犬種)은 푸들로 조사됐다. 포메라니안, 웰시코기 등 유행 견종이 유기되는 사례도 늘었다.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모두 9만348마리였다. 2014년 5만7882마리였던 게 5년 만에 3만 마리 넘게 증가했다.

믹스견(5만1350마리)을 제외한 견종 중에는 푸들이 가장 많이 유기됐다. 지난해 푸들 7504마리가 버려졌다. 몰티즈(7158마리), 진돗개(3749마리), 시츄(2310마리)도 유기견이 많았다. 포메라

니안(2217마리), 치와와(1026마리), 웰시코기(669마리) 등 한때 인기견으로 꼽혔던 품종에서도 유기견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방송 등을 통해 인기를 끌었던 웰시코기 유기견은 2014년 81마리에서 8배 증가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는 “인기 있는 종들은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기견 보호소에 많이 입소된다. 사육이 어려워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한·말레이시아 FTA 연내 체결한다

양국 정상회담서 합의
4차산업·할랄시장 공동 진출
미래車·스마트 제조 등 협력
문 대통령 “국민 체감 성과낼 것”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인해 양국 교역 품목의 90% 수준이 이미 개방돼 있으나 우리의 일부 주력 수출 품목이 제외돼 있다”며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통해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쿠알라룸푸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압둘라 국왕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은 90억 달러(전년 대비 12.5% 증가), 수입은 102억 달러(17.2% 증가)로 총교역액은 192억 달러였다. 수출품은 집적회로 반도체, 경유, 합성고무, 휘발유, 선박 등이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반도체, 중유, 컴퓨터 부품 등이다.

양 정상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ICT,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확대와 화물·

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교통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 확대 △제3국 할랄시장 공동 진출 △할랄 인증기관 간 교차인증 확대 및 할랄식품 공동연구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번영 협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협력 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사전 환담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제조업 4.0(Industry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MOU) △교통협력 MOU △스마트시티 협력 MOU △할랄 산업 협력 MOU 서명식에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은 현대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 양국 기업인과 정부 인사 450여 명이 참석하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신동민 기자 lawsdm@

감사원 “靑 10만원 이상 일식집 식사 문제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 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pbell@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받는다

일반인 LPG 차량 구매 가능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고, 일반인도 액화 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 등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미세먼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학교 보건법 개정안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기 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한반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한 것으로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학교 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현정 기자 jh@

김관영 “靑 조직·예산 축소… 국정, 내각에 맡겨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주성 실패” 정책 변화 촉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청와대에는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반기정립’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특감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내년도



홍영표(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롯데칠성음료

우도 블랑로셰 카페 —
이제 집 앞에서 만나라

Cantata
ORIGINAL BLEND COFFEE
X
BLANC ROCHER
평몽크림라떼
by 우도블랑로셰

BLANC ROCHER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783

우도 블랑로셰 카페는 칸타타의 지역생생 캠페인이 발굴한 첫 번째 카페입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별 유통바코드

트럼프, '수입차 관세' 손 댄나

상무부 보고 後 3주 지나도록 잠잠
대선 앞두고 통상 마찰 자체 움직임
부과 댄 자국차 가격도 인상 자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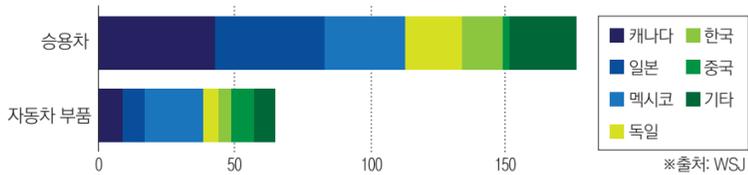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지 3주가 지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슬슬 시작해야 하는 현실점에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통상 마찰의 방아쇠를 당길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선 미 의회는 물론 소비자의 반대 소송 리스크 등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수입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지난달 백악관에 제출했다. 아직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동을 허용한 것과

미국의 각국별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
(단위: 10억 달러, 2017년 기준)



같은 수준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무부 권고안 이행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과 대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공격적으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백악관은 WSJ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문의에도 논평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 유럽 관리는 "백악관이 자동차 관세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며 "단기적으로 관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40~50%가 수입산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재선에 올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유권자들

의 불만이 거세질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

또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합의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관세를 추가하면 새 나프타 딜(Deal)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자동차 관세 도입에 대해 의회가 거부권을 갖는 새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제키 왈러스키(공화당·인디애나) 하원의원은 "미국 중산층 가정이 모는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내 지역구의 자동차 부품업체와 레저용 차량(RV) 제조업체들이 해외의 보복을 받을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디애나주 소도시 엘크하트는 세계적인 RV 생산 중심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필리핀, 극심한 가뭄... '물 좀 주세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의 만달루용시에서 13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물을 받기 위해 길게 줄서 있다. 필리핀은 건기와 엘니뇨 현상이 겹쳐 곳곳에서 수도 공급이 중단되며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만달루용/EPA연합뉴스

〈정부가 개입한 노사 임금협상〉

일본기업 '관세 춘투'에 난색

중국궈 경기둔화에 실적악화 우려
도요타 등 임금인상 전년 밑돌 듯

중국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염려하며 정부 주도의 '관세춘투(官製春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노사는 13일(현지시간) 춘투에 돌입했다. 춘투란 매년 2~3월 노사가 임금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걸 관세 춘투라 한다.

춘투 시즌 돌입과 함께 주요 기업들은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해 노조에 답변을 시작했다.

올해 춘투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유통, 외식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임금을 인상할지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노조의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요타는 노조가 요청한 1만2000엔(약 12만2085원)을 밀도는 1만700엔을 제시했다. 혼다는 전년보다 300엔 낮은 1400엔 인상으로 타결했다. 파나소닉과 히타치, 미쓰비시 등도 전년보다 500엔 낮은 1000엔에 합의했다.

닛케이는 "현행 8%인 소비세율이 올 10월 10%로 인상될 예정인 데다 중국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들에 부담을 안겨줬다"며 "실적 악화 요소가 증가한 가운데 기업들의 반(反)관세춘투 행보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내각은 2014년부터 6년간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経団連)은 올 1월 회원사의 임금협상 지침 격인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를 발표해 아베 내각의 임금인상 개입을 비판했다.

문서에는 "임금인상은 경영자가 임금 결정의 대원칙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할 결정"이라고 기록돼 있다. 특히 "앞으로 임금인상은 노사에 의해 철저하게 논의의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5월 선임된 나가니시 히로야키 게이단렌 회장이 아베 내각이 시작한 관세 춘투에 대해 "본질적 임금인상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정권에서 임금인상 목표 수치가 나오는 것에 위화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hyeonsu95@

“노 딜이나, 연기냐”... 또 앞어진 브렉시트 수정안에 英 재계 “의회, 서커스 멈춰라”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또 부결되자 영국 재계가 분통을 터뜨렸다.

재계는 영국 의회에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이탈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실하게 브렉시트 방안을 정립하라”고 촉구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EU와 합의한 EU 탈퇴 협정 및 ‘미래 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이는 영국의 정사상 정부가 의회에서 기록한 패배 중 네 번째로 큰 부결 표차다.

메이 정부는 관세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포함해 세부 계획을 다듬어 13일 노 딜 브렉시트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방안도 부결되면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놓고 또 투표가 진행된다.

재계는 ‘노 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로비단체 영국산업연맹(CBI)은 “의회가 서커스를 멈출 시간”이라며 “이날이 정책 실패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생계가 달려 있다”고 성토했다. 캐롤린 페어번 CBI 사무총장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 “프로세스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확실한 계획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상공회의소의 애덤 마셜 사무



영국 의회의 의사당 밖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브렉시트 찬반 시위 중 한 시민이 “브렉시트는 아플 것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런던/UPI연합뉴스

총장은 “기업들은 거듭해서 영국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EU 탈퇴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은 지난 수개월간 브렉시트 혼란에 대비한 플랜 마련에 분주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오는 노 딜 브렉시트로, 새 무역장벽이 세워지면서 투자와 경영이 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면 전체 무역품의 80~9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낮출 계획이다. 섬유와 자동차, 육류, 유제품 등 핵심 제품에 대해서는 현 관세가 유지된다.

그러나 헬렌 디킨슨 영국소매업컨소시엄 최고경영자(CEO)는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과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력난에 24시간 영업 접으려니 매출난 고민되는 日 세븐일레븐

“24시간” 편의점이 기로에 놓였다. 일본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이달 중순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게 되면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실적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영업시간 단축 실험 계획을 밝힌 후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7일에는 11개월 만의 최저치인 4450엔을 기록했다. 라쿠텐증권경제연구소의 마쓰무라 리카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향후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세븐앤아이홀딩스는 그동안 ‘24시간 영업’을 내세워 성장해왔다. 가맹점주들의 영업시간 축소 호소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세븐일레븐 점주들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에 관한 단체교섭’을 본사에 요구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 단축 실험을 결정했다. 심야시간대 인력 확보와 점주들의 고통화 등이 주된 이유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븐일레븐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면 영업이익이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일본 전역에 약 2만1000개의 가

맹점을 갖고 있다. 회사는 가맹점에서 상품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지도로 명목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엔어치를 사면 매출 총이익은 300엔, 경영지도로가 50%라고 치면 본사가 얻는 수익은 150엔이다.

그러나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영업시간 선택제를 도입해도 24시간 영업을 폐지하는 매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의 아오키 히데히코 애널리스트는 “매장 문을 닫기 전후 시간대의 수입 감소도 커지기 때문에 본사보다는 가맹점의 수익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온 이유는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력 파견 회사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구인 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며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편의점은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졌다.

신문은 편의점들이 24시간 영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이미지를 구축해 온 만큼 심야시간대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첫 등교는

I am your Energy나

처음 네가 혼자 걸어가는 길.

엄마 손 꼭 잡고 걸던 길을

이젠 혼자 씩씩하게 걸어 가네.

앞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 갈 네 발길을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게.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윤봉길'님과 '한용운'님의 서체를 개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풀다

금융위, 법제화 연구 계약 체결
자회사 확대·투자 활성화 유도

금융위원회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금융권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금융권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관한 해외 사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를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융 핀테크와 가상화폐 분야 전문인 강현구 변호사가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를 활발히 하고 핀테크 자회사를 늘리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앞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

금융사 출자제한 관련 법령

기준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적용회사	동일 기업집단 내 모든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출자제한비율	5%(+사실상 지배), 20%, 25%, 33%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가능한 예외조항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회사	고유업무와 직접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위해 필요한 회사

기준	은행법	보험업법
적용회사	은행	보험회사
출자제한비율	15%	15%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가능한 예외조항	은행업무 관련 금융전산업 등	없음

다. 지난해 11월 규제개혁 TF는 1차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를 위해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최종규 금융위원장도 간담회에서 "올해는 핀테크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외의 회사를 소

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아예 불가능하고, 은행과 보험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단 일부 유형의 회사의 경우 제한비율 이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는 그중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할 만한 문구가 있다. '금산법'에는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은행법'에서는 '은행 업무와 관련 금융 전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왔지만, 출자 가능한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마저도 '보험업법'에는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조차 없어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각 법률의 출자제한 예외 기업에 '핀테크 기업'을 넣는 식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핀테크기업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명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예외 기업을 선정하는 식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13일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 교실을 방문해 유치원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육아 전도사 '윤종규' KB금융, 4년간 750억 투입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지원

"더 많은 유치원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위초등학교에서 열린 '병설유치원 개원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KB금융은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에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이내 오픈 예정인 시설은 초등돌봄교실 543개, 국·공립 병설유치원 180개 학급이다. 약 1만4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지난해 5월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 △혁신 창업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의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KB Dream's Com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병설유치원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동으로 조성한 서울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기존 교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개축해 만들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서 건립 시기와 비용을 줄였다. 유치원은 5~7세 반과 특수반 등 4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수용 원아 수는 60여 명에 이른다.

KB금융 관계자는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구축은 경력단절 학부모의 사회 조기 복귀, 사교육비 절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주담대, 증가세 꺾였다... 1년 만에 최저

가계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주택거래가 위축된 탓이다. 다만 개학 등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수요는 꾸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설 명절 효과가 해소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중 정책 모기지를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831조2000억 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2조5000억 원 늘었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월 평균 증가 규모(3조

주택거래 위축에 증가폭 2.4兆 이사철 맞아 전세자금 수요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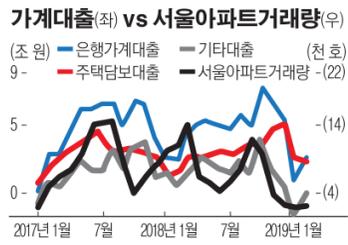
원)보다 적은 것이다. 1월에는 1조1000억 원 늘어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주담대가 2조4000억 원 늘어난 61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월(1조8000억 원 증가)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실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00호에 그쳤다. 작년 12월 2000호를 기록한 데 이어 석 달 연속 거래량이 2000호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이는 2013년 7월(2000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상호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택 매매거래 축소로 인해 주택구입 자금은 크지 않았다. 주담대의 상당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 수요"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1월 주담대 증가폭 2조7000억 원 중 1조8000억 원이 전세자금 대출 수요였다. 2월 또한 주요 5개 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기타대출은 1000억 원 증가한 217조 원을 기록했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인한 계절 요인이 해소된 때문이다. 이 과정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월보다 늘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3월 숫자까지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권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아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권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갤럭시폰, 스스로 학습해 바이러스 공격 막는다

삼성, AI 머신러닝 보안 도입

앞으로는 모바일 보안업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바이러스 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와 가전기기까지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해킹 등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보안시스템을 도입한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 모바일 보안업체와 협력해 삼성 자체

이스라엘 보안업체 '짐페리움'과 차세대 모바일 보안기술 공동개발 장치·네트워크·피싱·앱 위협

5년간 업데이트 없이 100% 감지

보안 솔루션 녹스(Knox)에 차세대 보안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 덕분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스라엘 모바일 보안업체 짐페리움(Zimperium)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 두 회사는 기존에도 협력 관계를 유지

해왔는데, 이번엔 함께 차세대 모바일 보안 기술을 개발하며 확장 제휴에 나섰다. 짐페리움은 2010년부터 AI 머신러닝 보안 솔루션 개발에 투자해 온 기업이다.

새로 개발한 보안 솔루션은 짐페리움의 차세대 AI 머신러닝 기반 보안 기술과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솔루션 녹스의 포괄적인 하드웨어 치료 기능을 결합했다. 특히 받은 머신러닝 엔진인 z9을 기반으로 하는 짐페리움 zIPS는 장치, 네트워크, 피싱, 애플리케이션 등 네 가지 모바일 위협에 대한 공격을 탐지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z9은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고 제로데이의 모바일 공격을 100% 감지했다. 제로데이는 보안 취약점

을 해결할 패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공격이다. 대비책이 없으니 해킹 위협이 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짐페리움 솔루션은 머신러닝을 통해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은 스스로 학습하며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로 자율주행차 등을 연동할 수 있게 되는 5G 시대에 해킹이 이뤄진다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보안의 중요성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B2B 제품 관리 이사 닉 도슨

은 "수년 동안 삼성과 짐페리움은 글로벌 고객이 지속해서 모바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며 "짐페리움의 머신러닝 탐지와 삼성 녹스의 하드웨어 치료 기능을 결합하는 강력한 새로운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상호 고객을 계속 보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짐페리움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모든 기능에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고 기업에서 모바일 채택을 대폭 늘려 보안 위협이 크다"며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는 알려진 것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고급 보호 기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모비스, 中스타트업 '딥글린트' 55억 투자

'안면인식' 차량보안 인증 등 공동 개발... 개방형 협업 속도

운전자의 얼굴이 자동차 키(key) 역할을 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물인식, 행동패턴 분석 기술을 보유한 중국 스타트업 딥글린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55억 원이다.

딥글린트는 중국 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인식 분야 스타트업 중 하나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행동 패턴 등을 이미지로 분석하는 데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딥글린트의 안면 인식과 분석 시스템은 50m 거리에서 10억 명 중 한 사

람의 얼굴을 1초 내에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와 딥글린트의 기술 협력은 △차량 보안 인증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차량 내 가상비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차량 보안 인증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얼굴 인식을 통해 운전자가 확인되면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거는 형태다. 차량 내 카메라로 운전자의 얼굴이나 시선, 표정을 분석하는 기술은 운전자가 주행 중 졸고 있는지, 전방 주시 상태가 불안한지, 건강에

이상 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알람 경고음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성능 안면인식 기술은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읽어 가상비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딥글린트의 얼굴 인식과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피곤한 운전자에게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량과 사람간 커뮤니케이션 분야로도 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딥러닝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스트라드비전에 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노벨경제학상' 폴 로머에게 혁신성장 배운다



27일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 한국경제 미래 논의

재계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신성장이론의 대가 폴 로머(사진)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로부터 혁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방안을 배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로머 교수를 초청해 '혁신성장,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로머 교수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부총재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으로 분류되는 지식이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성과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로머 교수는 기술 혁신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단기적 성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노동과 자본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는 전통 경제학과는 달리

내생적 성장 이론은 연구개발(R&D)을 통해서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재료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가져야 할 비즈니스 전략과 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R&D 영역이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R&D를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구조적 저성장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머 교수는 특별강연 후 대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진행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아차 '2019 KBO 리그' 공식 후원

정운천(오른쪽)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권혁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이 12일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현대로템 전동차, 터키 마르마라이 쇠구간 운행

현대로템 전동차(사진)가 터키 마르마라이 전 구간에서 운행된다.

현대로템은 12일(현지시간) 터키 카르탈역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 메흐멧 자히 톨한 교통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르마라이 전 노선 개통식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개통된 마르마라이 전 구간에는 현대로템의 전동차가 운행될 계획이다. 마르마라이는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을

관통해 세계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해저 철도로 길이 77km의 노선이다. 일부 구간은 2004년 부분 개통했지만 이후 유물 발굴 등의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다가 이번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할카르역에서 게브제역으로 이어지는 전 구간이 개통됐다.

현대로템은 2008년 약 6700억 원 규모의 마르마라이 전동차 440량을 수주했다. 이어 2013년 95량의 전동차 납품을 시작으로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영업운행을 지



속했으며 이번 개통에 240량이 추가 납품돼 총 335량이 영업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차량들도 올해까지 납품이 이뤄진다. 현대로템은 터키에 약 1900량의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LG전자, 美 정부서 친환경 인증

'지속가능 소재 관리상' 금상... "전자제품 재활용 공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최근 발표한 전자산업 부문 '2018년 지속가능 소재 관리상(SMM 어워드)' 수상업체 명단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두 기업은 미국 IT기업인 델과 HP, 일본 소니, 중국 가전업체 TCL 등과 함께 '금상(Gold Tier Awards)'을 받았다.

EPA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동시에 버려진 전자제품을 매립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하는 IT·전기·전자 업체를 매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

EPA는 "이번에 수상한 업체들은 약 27만6000톤에 달하는 폐전자제품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면서 "이들은 혁신적 경영 관행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작년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에 나선 점을 인정받아 EPA가 주관하는 '에너지스타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재활용 프로젝트인 '갤럭시 업사이클링'은 지난해 1월 EPA가 선정한 '2017년 SMM 어워드'에서 '신기술상'을 받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미세먼지에 시동 걸린 LPG車 확대... 업계는 '시큰둥'

LPG 기술 2000년 수준서 멈춰
출력·저연비 등 문제 개선 안돼
휘발유·경유 수요 줄면 세수 감소
"시장 변화·수요 증가 보고 대응"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해 LPG 자동차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완성차 메이커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내보이며 신중한 입장이다.

13일 자동차 업계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방안 가운데 하나인 LPG 사용 확대와 관련해 "시장 변화와 수요 증가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도 LPG 자동차 수요에 맞춰 준중형과 중형차에 관련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가스(기체) 분사방식인 과거 LPG 모델과 달리 액화 상태의 연료분사 시스템을 갖춘 LPi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여러 단점을 해결한 상

태"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관계자 역시 "트렁크에 LPG 탱크를 장착하는 대신,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동그란 도너츠 모양의 연료탱크를 장착해 출시하고 있다"며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모델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LPG 연료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LPG는 환경부 기준 배출가스 등급이 1.86이다. 각종 유해가스에 기준 점수를 더하고 이를 계량화해 합한 수치인데, 경유차(2.77)는 물론 휘발유차(2.51)보다 친환경적이다.

이처럼 배출가스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국내 완성차의 LPG 관련 기술은 사실상 2000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출 주력국의 에너지 환경 및 인프라에 맞춰 휘발유와 디젤엔진에 방점을 찍고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출 주력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은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은 덕에 디젤보다 가솔린 모델이 인기가. 대배기량(기름을 많이 먹는) 픽업트럭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디젤의 인기가 높다. 우리가 쓰는 유로5와 유

로6 등 디젤 배기가스 기준 역시 유럽에서 들어왔다.

결국 우리나라는 LPG 연료를 쓰는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적이 없다.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이용해 LPG를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등장한 LPG 엔진 기술이 그나마 과거의 단점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겨울철 시동과 분사 장치의 잔고장, 출력과 저연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값싼 연료라는 명제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휘발유나 경유 수요가 LPG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LPG에 세금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앞서 MB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디젤의 시장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는 디젤차가 증가하자 경유세를 도입해 1당 단가를 휘발유의 80% 넘게 끌어올린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이중화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추가 확대 등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전자, 호주서 지역 밀착 신제품 발표회
LG전자가 12일부터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LG InnoFest)'를 열었다. LG전자는 시드니 근교의 일반 주택을 'LG 홈'으로 꾸며 고객들이 실제 주거공간에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LG 이노페스트 참가자들이 'LG 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밖으로 접을까 손목에 찔까 '갤럭시 폴드' 후속 이목 집중

삼성전자, '아웃폴딩·벤더블' 기술 특허 출원

삼성전자가 다양한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하면서 '갤럭시 폴드' 후속으로 어떤 모델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해외 IT 매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아웃폴딩 방식의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WIPO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치(Foldable display apparatus)' 특허를 출원했고, WIPO는 최근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특허 출원 도면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 접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2개의 케이스로 구성된다. 연결 부위인 힌지(경첩)를 통해 스마트폰 케이스 2개가 매끄럽게 접히거나 펼쳐진다. 단말기 후면에는 스마트폰이 의도치 않게 접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장착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부릴 수 있는 '벤더블(bendable)' 스마트폰 기술 특허도 WIPO에 신청했다. 스마트폰

을 펼쳤을 때는 좁고 기다란 모양이지만, 한 방향으로 구부려 손목에 찔 수 있는 형태다. 스마트폰 후면은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탄성 플레이트로 이뤄져 있으며, 이 탄성 플레이트는 복원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과 위아래 수직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등 신제품 2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수직폴딩 폴더블폰이 안으로 접히지만 조개처럼 위에서 아래로 접히는 방식이며, 아웃폴딩 폴더블폰은 화웨이 공개한 메이트X 모델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삼성의 폴더블폰과 미래의 풍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점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국타이어 새 간판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사업 다각화 추진
조양래 회장 등기임원서 물러나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조양래 회장 역시 지주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의 등기임원에서 물러난다.

13일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대표이사 조현식)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조현범)도 같은 날 주총을 열어 사명을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변경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요 안건으로 '상호변경'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주총에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내이사로 임기를 마치게 된 조양래 회장은 등기임원에서 물러날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의 자리는 한국타이어 사장이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차남 조현범 사장이 이어받는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된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에서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 차남인 조현범 사장으로 경영 승계가 확정된 만큼, 그룹의 전체적인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이가 타이어에 국한된 현재 사업을 종합 자동차부품그룹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를 맡고, 차남인 조현범 사장이 '한국타이어'를 이끌어 왔다. 지주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 M&A와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앤컴퍼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조장치 전문기업 한온시스템(옛 한라비스테온)을 인수한 것이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 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딩 컴퍼니 - DB캐피탈



스쿨뱅킹 신한카드 자동납부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이 사라졌다



※ 학교별 스쿨뱅킹 자동납부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내는 날, 교재비 내는 날, 현장학습비 내는 날...
일일이 학교 납입금 챙기느라 번거로우셨던 학부모님을 위해
신한카드가 스쿨뱅킹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쿨뱅킹 카드 자동납부란?

이제 전국 초중고 학교 납입금도 신용/체크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
가족 누구라도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교직원 식별번호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수납시작은 카드사에서 신청한 날 이후 차주 화요일부터 적용
※ 신한 법인카드, 특수 목적 카드, 충전식 카드, 선불식 카드, 기프트카드, 신한BC카드 제외

신청방법 ARS 1670-0909(공부공부) / 모바일 앱 / 홈페이지

신한카드로 스쿨뱅킹 신청하고 혜택받자!

- 신한카드로 자동납부 시 최대 1만 원 캐시백 /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등 경품 증정
-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 초청 (남윤곤 소장 초청, 전국 7개 도시 개최)
- 참가 신청: 2019년 3월 4일 ~ 20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당첨 고객: 신한카드 스쿨뱅킹 자동납부 고객 대상 추첨 선정 (당첨 고객 개별 통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shinhancard.com]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4%)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 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및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0225-Cpn-001호 (2019.02.25)

M&A·친환경 투자·경영 승계... 갈 길 바쁜 제지업계

지난해 중국 환경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국내 제지업계가 올해 M&A(기업인수합병)를 비롯한 친환경 사업 강화, 경영승계 등의 현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솔제지와 무림P&P 등 매출 상위 업체들의 수익성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M&A 등 주요 사업 성패에 따라 업체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13일 국내 제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각 업체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신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내외 현안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속화와 함께 환율 및 폐지·펄프 가격 변동 등의 경영 환경 변화가 지난해에 비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국내 제지업계는 종이·판지 1150만t을 생산, 세계 5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제33대 한국제지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석만 무림페이퍼 사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제지업계의 경영 위기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수출환경 악화 등의 위협이 있다"며 "신제품·신시장 개척은 물론 전환

경 시스템 적용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업계 내에서 올해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대규모 M&A다. 제지업체대주주인 사모펀드 등이 작년 업계 호황으로 기업 가치가 똬 업체를 매각해 차익 실현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골판지 업체에 대한 매각설이 우세하다. 매각 첫 순위에 오른 업체는 태림포장(태림페이퍼), 영풍제지 등이다.

태림포장과 태림페이퍼는 각각 골판지상자와 원지를 생산하는데,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PE(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 주주다. 두 업체는 지난해 폐지 가격 하락과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이 맞물리면서 실적 상승을 꾀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보유한 영풍제지 역시 지난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매물로 나

M&A (기업인수합병)	- 태림포장, 태림페이퍼 - 영풍제지
친환경 시스템	- 무림P&P(에너지 자체 생산 총 1860억 원 절감) - 한솔홈데코(신재생에너지 연평균 59억 원 절감) - 전주페이퍼(친환경폐수처리시설 하루 1000가구 사용량) - 깨끗한나라(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강화)
경영승계	- 한국제지(단우영 해성디에스 사장 및 단우준 해성디에스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 깨끗한나라(최현수 부사장 각자대표 사내이사 선임)

태림포장·영풍제지 매물 전망, 한솔·한국제지 인수후보로 무림P&P·한솔홈데코 등 폐목재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우영·단우준·최현수 사내이사 입성... '3세 경영' 본격화

올 것이라 전망이 높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골판지 사업이 약한 한솔제지나 한국제지 등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각 이슈에 이어 올해 제지업계의 핵심 코드로는 친환경사업 투자가 꼽힌다. 우선 무림P&P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공장

운영에 사용하면서 연간 약 1680억 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목재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신소재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오공대 고분자공학과와 목재·플라스틱이 결합된 신소재 'WPC'를 개발하기도 했다.

한솔그룹 한솔홈데코도 마루나 벽재 등

각종 가구 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쓰고 남은 목재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 2013년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연간 평균 2만5348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59억 원을 절감했다.

신문·출판용지를 전문으로 하는 전주페이퍼도 병커C유 대신 목재를 태워 바이오매스를 생산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 친환경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만드는데, 하루에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깨끗한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청주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도 올해 제지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한국제지는 22일 주총을 열어 단우영 해성디에스 사장과 단우준 해성디에스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같은 날 깨끗한나라도 주총을 열어 최현수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최 부사장은 최병민 회장의 장녀로 깨끗한나라에 입사한 지 13년 만인 1월 말 각자대표로 내정됐다. 이재훈 기자 yes@

'LG G8 씽큐' 최대 106만원 할인

이통3사 내일부터 사전예약

이동통신 3사가 'LG G8 씽큐(ThinQ)' 공식 출시에 앞서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이통사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전에 나선다.

이통 3사는 G8 씽큐 예약판매를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식 인증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 2월 'MWC 2019'에서 공개된 G8 씽큐는 'Z 카메라'를 전면 탑재하고 손짓만으로 앱을 구동하는 '에어 모션' 기능을 담았다.

G8 씽큐(128GB)의 출고가는 89만 7600원이다. 이통 3사는 신용카드 제휴 할인과 G8 전용 클럽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

KT는 제휴카드 2장으로 2번 할인받는 '카드 더블할인 플랜'을 출시했다. 이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2년간 단말과 통신요금에서 각각 월 2만 원씩 최대 96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슈퍼할부 신한카드 장기 할부 5만 원 이상 수납 등을 통해 G8 씽큐 한정 캐시백 10만 원을 받으면 최대 106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제휴카드 2장 2번 '더블할인' 888명 추첨 AI 스피커 증정 '자동이체' 최대 50만원 할인

KT는 G8 씽큐 사전예약 신청자 중 888명을 추첨해 인공지능(AI)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증정한다. 직장인을 위해 가까운 KT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바로 픽업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SKT 라이트-플랜(Light-Plan)'과 '텔로(Tello) 카드' 등을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98만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G8클럽 이용 고객은 구매 12개월 뒤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고 다음 LG플래그십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의 최대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 U+ 스마트플랜' 신한빅플러스(BigPlus) 카드'로 단말기 금액을 할부 결제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월 최대 2만 1000원씩 2년간 총 50만 4000원을 청구 할인해준다. 해당 카드를 LG페이로 등록해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그다음 달 10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포함하면 최대 60만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G8 더 슈퍼찬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LTE 스마트폰인 G8 씽큐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 출시 후 10일 내 기기를 변경하고 사용하던 LG G8 씽큐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100%를 보상해준다.

출고가의 60%만 24개월간 나눠 내고 24개월 후 LG전자 신규 프리미엄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출고가 40%를 보상하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2개월형을 이용할 경우 출고가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김범근 기자 nova@

한컴그룹-중아이플라이텍 합작사 설립

합작기술 1호는 'AI 실시간 통번역'

회의록 자동으로 기록·공유 인터넷 없이 7개 언어 통번역 '지니비즈' '지니톡 고' 공개 핀테크·에듀테크 등 사업 협력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중국 음성인식 기업 '아이플라이텍'과 손잡고 음성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13일 한컴그룹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 아이플라이텍과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중 인공지능 생태계 공동 구축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양사는 합작법인 'Accufly.AI(아큐플라이 에이아이)'를 설립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하드웨어 솔루션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금은 두 회사가 동일하게 50대 50으로 투자했으며 경기도 판교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에서 경영할 계획이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미래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언어와 문자로 보고 양사가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정부가 선정한 4대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다. 이미지와 음성, 얼굴 식별 기술을 겨루는 글로벌 대회인 '블리자드챌린지'에서 12년 연속 우승할 정도로 음성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음성인식 정확도는 98.1%, 중국 22개 방언도 98%의 정확도로 식별하는 등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567억 원을 기록했다. 한컴과는 지난해 6월 MOU를 체결하고 합작 사업을 모색해 왔다.

우샤오루 아이플라이텍 집행총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중요한 최신 키워드"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 아큐플라이 AI를 통해서도 우선 5월 인공지능 솔루션 '지니비즈(사

진)'와 휴대용 통번역기 '지니톡 고'를 출시한다.

지니비즈는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4개 언어에 대한 통번역 기능을 탑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의 대화도 자유로운 미팅이 가능하다.

지니톡 고는 7개 언어의 통번역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통번역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메뉴판 등 이미지 번역 기능도 제공한다.

핀테크 사업은 중국 은행을 대상으로 AI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플라이텍의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 금융 환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어로 기반으로 한 AI 컨택 센터를 공동으로 개발해 은행과 보험사, 이동통신사 등에 챗봇 기술을 적용한다.

또 에듀테크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음성 기술의 강점을 살려 언어교육을 위한 대화형 개인 맞춤 학습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국내 의료시장의 규제 완화와 개방을 대비해 아이플라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비롯해 음성인식 전자차트 입력 기술, 영상 분석 기술력 등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교류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김 회장은 "세계 AI 시장에서 언어와 음성 중요도가 급부상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이플라이텍과의 협력을 결정하게 됐다"며 "합작법인을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음성기술의 접목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ICT 창업·벤처 지원 효과, 작년 일자리 1224개 늘었다

매출액 20%·투자유치 60% ↑

정부가 시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효과로 작년에만 1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기업들은 평균 매출액은 20%, 투자 유치 규모는 60%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K-Global 프로젝트) 수혜 기업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ICT 창업·벤처기업의 개별 수요를 바탕으로 창업→성장→해외진출→

제도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단계에서는 CEO 출신 멘토를 중심으로 한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공모전 개최를 통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도 지원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해외 현지 수요를 반영한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430개 기업의 임직원 수는 4199명으로 전년 대비 41.1%(1224명) 증가했다. 수혜 기업의 78%인 336개사에서 신규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35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1%(625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매출액은 554억 원으로 15.5%를 차지했다. 투자 유치 규모도 60.8% 증가한 1285억 원이었다. 특허 출원 건수는 1392건으로 1년 전보다 39.5% 늘었다.

정부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개를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퓨처(Future)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초저가 기획·한식 델리’ 내세워 코스트코에 도전장

가보니

‘서울 1호’ 트레이더스 월계점

동북부 중심에 3000평 규모
45만 원 초저가 55인치 TV
호주산 와규 30% 저렴해
부대찌개 밀키트 등 차별화
2030년 50개까지 점포 확대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서울에 첫 매장을 연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매장 전경(왼쪽 사진)과 신선식품관에서 직원들이 개장 준비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 이마트·연합뉴스

13일 개점을 하루 앞두고 찾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 1호점인 월계점 매장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초저가 상품이 눈에 띄었다. 매장 입구 가전 코너에서는 55인치 UHD TV를 44만8000원에 판매한다. 비슷한 성능의 대기업 제품(약 150만 원)에 비해 3분의 1 가격이다. 2l짜리 6묶음으로 판매하는 ‘마이워터’ 생수는 1880원에 불과했다. ‘호주산 와규’와 ‘생연어’는 기존 유통업체와 비교해 30~40%가량 저렴하다. 트레이더스의 히트 상품인 에어프라이어는 7.2l 대용량으로 월계점에서 첫선을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병행 수입과 해외 소싱 등 유통 구조 혁신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핵심 경쟁력으로 ‘초격차 상품기획(MD)’을 꼽고 있다. 초격차 MD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다른 업체에서 따라 할 수 없는 차별화 상품을 일컫는다.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2010년 경기도 용인시에 첫선을 보인 지 9년 만에 서울에 입성했다. 대형마트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온라인과 트레이더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레이더스는 올해에만 3개의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올해를 1등 창고형 할인점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격적인 신규 출점을 통해 2030년까지 50개 점포,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앞으로 이마트의 오프라인 정책 방향을 책임질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포는 기존 이마트 월계점의 주차 부지를 증축해 만들어 이마트와 나란히 있다. 3~4층은 통로로 연결된다.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서울 동북부 6개 행정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점포 반경 3km 이내 거주 인구가 120만 명이고 7km 이내엔 100만 가구, 240만 명이 거주하는 등 배후도 탄탄하다. 매장 면적 역시 9917㎡(3000평), 연면적은 축구장 6.5배 크기인 4만5302㎡(1만3704평) 규모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한국식 델리다. 월계

점에서 판매하는 부대찌개와 감자탕 등 한식 기반의 신선식품 밀키트는 그동안 창고형 할인점에서 볼 수 없던 상품이다. 대표 상품인 ‘가짜 부대찌개’는 가정에서 바로 불에 올려 끓여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신선식품 코너는 투명 유리로 제조 과정을 공개한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신선 식품에 주력해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주요 경쟁자인 미국계 코스트코가 내놓지 못한 상품으로 차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와의 한판 대결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월계점과 코스트코 상봉점은 직선거리로 4km에 불과하다. 창고형 할인점에서는 점포 반경 3km 이내를 직접 상권, 반경 7~10km 이내를 간접 상권으로 본

다. 코스트코 상봉점과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간접 상권으로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다. 하지만 코스트코 상봉점(1만3223㎡)은 트레이더스 월계점보다 1.3배가량 매장 면적이 넓은 데다 경의중앙선 및 7호선 상봉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민영선 트레이더스 부사장은 “인근 경쟁업체의 매출 10% 이상을 빼앗아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트레이더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25.5% 늘어난 1조9100억 원, 영업이익은 23.9% 증가한 62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는 30.6% 늘어난 2조4940억 원이다. 이 중 월계점의 연 매출 목표는 1400억 원이다. 남주현 기자 jooh@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델들이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신제품 ‘테라’ 출시 “100년 기업 맥주 신화 쓰겠다”

김인규 대표 간담회

“힘들고 어려웠던 맥주 사업에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

김인규(사진) 하이트진로 대표는 13일 조선호텔에서 새로운 맥주 ‘테라(T-ERRA)’ 출시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맥주 시장 탈환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테라가 하이트진로의 맥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맥주시장에서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뒤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하이트진로가 100년 기업에 걸맞은 맥주 신화를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새로 내놓은 ‘테라’는 기존 맥주와 차별화한 원료, 공법을 적용해 ‘청정 라거’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깨끗한 원료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정과 자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을 주목해 테라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출시되는 테라는 라틴어로 흙, 대지, 지구를 뜻하는 네이밍을 적용했으며 호주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골드라이언글’ 지역의 맥아만을 100% 사용했다. 발효 공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리얼탄산만을 100% 담아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용기 역시 청정 콘셉트를 강조하기 위해 녹색을 사용했으며 병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연구해 반영했다. 병 목 디자인에 토네이도 문양을 새겨 다른 맥주와 차별화하는 청량감을 강조했다.

테라는 출시 전 2200명의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해 66%대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500l 병 제품과 355ml 캔 제품으로 출시된다. 출고가격은 캔이 1239원, 병이 1147원으로 기존 맥주와 동일하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현대백, 밀레니얼 세대 타깃 ‘e스포츠 팝업스토어’ 문 연다

내일부터 신촌점 ‘슈퍼플레이’

현대백화점이 밀레니얼 세대를 찾기 위한 ‘영 콘텐츠 살림’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15일부터 28일까지 신촌점 지하 2층에 e스포츠 전문 팝업스토어 ‘슈퍼플레이’의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백화점에 e스포츠 관련 팝업스토어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의류·가방·액세서리·게임 관련 기기 등 1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월간 접속자가 1억 명이 넘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국내 프로 게임 구단과 협업해 만든 유니폼, 인기 PC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공식 굿즈, e스포츠 스타플레이어인 이상혁(FAKER)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든 ‘페이크 에디션’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르면 연내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찾는 신촌점·목동점·판교점 등에 e스포츠 정식 매장 문을 연다. 특히 2020년 하반기 개점 예정인 현대백화점 여의도점(가칭)에 496㎡(150평) 규모의 대형 e스포츠 매장도 열 계획이다.

e스포츠는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목동점·판교점·천호점 등 5개 점포에서 운영 중인 게임 체험 매장 ‘플레이스테이션 라운지’에는 월평균 2만여 명의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다. 이중 80.1%가 밀레니얼 세대다. 일반적인 의류 매장의 구성비(26.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대백화점은 또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지속해서 선보인다.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추천



현대백화점 ‘슈퍼플레이’ 제품.

한 브랜드 20여 개를 한곳에 모은 ‘슈스스마켓’을 진행한다. 행사장에서 ‘한혜연’과 유명 인플루언서 10여 명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올 하반기에 무역센터점 등 주요 점포에 SNS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정식 매장도 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춘 차별화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대웅제약 ‘나보타’, 하반기 중서 임상3상

‘미간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 임상시험 제조시설 변경 승인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대웅제약은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에 접수한 나보타의 임상시험신청(CTA)에 대한 제조시설 변경이 6일 최종 승인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은 기존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제조시설을 바꾸는 내용으로 나보타의 CTA 허가 변경을 신청한 바



있었다. 2공장은 연간 450만 바이알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공장의 9배 이상 규모다.

대웅제약은 중국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거대한 보툴리눔 독신 시장에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생산 사이트를 2공장으로 변경했다.

CFDA 최종 승인을 받은 나보타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미간주름 개선’ 적응

증 확보를 위한 임상 3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이번 CTA 변경 승인으로 나보타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정 받은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진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최초로 FDA 판매허가를 획득한 나보타는 현재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 심사를 진행, 올해 상반기 미국 및 유럽 선진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김병철 號 신한금융 'IB 본색' 시동

임기 시작 앞두고 업무파악... IB부문 영업력 강화 조직개편
업체 "초대형 IB 육성 위해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 나설 듯"



그러나 김 내정자 선임과 함께 IB 부문의 영업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IB부문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올해 초 신한금융투자는 GIB(그룹&글로벌 투자금융) 및 GMS(투자운용사업그룹) 부문 영업조직을 확대했다. GIB그룹 아래에 구조화금융 2부, 프로젝트 구조화2부를 신설하고 PE(프라이빗에쿼티) 팀을 부서로 승격해 구

김병철(사진) 호 신한금융투자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통 IB맨으로 손꼽히고 있는 김병철 사장 내정자가 새 사령탑으로서 어떤 성과와 색깔을 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해 말 신입 사장으로 내정된 뒤 공식 임기 시작을 앞두고 업무 파악 및 인수 인계에 주력하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동양증권 IB(투자은행)

부문을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던 김 내정자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신한금융투자가 경쟁사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IB부문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신한금융투자는 IB 부문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IB부문 수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ECM) 및 채권시장(DCM) 전 영역에서 5위권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인수금융 부문에서는 10위권에 머물러 있다.

조화, 부동산금융, 신기술 사업금융 등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한금융투자는 IB부문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증권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김 내정자가 회사를 이끌 경우 좀 더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위험 부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병철 호 출범과 함께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것 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전환우선주(CPS)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를 초대형 IB로 육성하려는 사전 포석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조달 자금의 사용처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의 완전 인수를 꾀하고 있는데 롯데캐피탈 인수도 검토하고 있어 M&A(인수합병)을 위해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김 선임 사장은 IB출신답게 도전적이면서도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2월말 펀드 순자산 583兆... 전월비 9兆 증가

美 국채금리 하락 영향
채권형·실물펀드 호조

펀드 유형별 순유출 현황 (단위: 10억 원)

펀드유형	펀드유형			펀드유형	펀드유형		
	전월말 순자산	순자산 증감	당월말 순자산		전월말 순자산	순자산 증감	당월말 순자산
증권(A)	246,067	4,442	250,509	단기금융(MMF)(B)	106,101	-91	106,010
주식형	86,278	495	86,773	파생상품(C)	48,706	384	49,090
혼합주식형	9,842	80	9,922	부동산(D)	78,099	1,706	79,805
혼합채권형	17,743	10	17,753	특별자산(E)	70,886	1,025	71,911
채권형	105,742	2,861	108,603	혼합자산(F)	24,006	1,580	25,586
재간접	26,462	996	27,458	합계	573,871	9,045	582,916

* 출처: 금융투자협회

지난달 채권형펀드와 실물펀드의 수탁액 증가에 힘입어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 규모는 582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원(1.6%) 늘었다. 이 기간 전체 펀드 설정액 역시 전월 말 대비 6조 1000억 원(1.1%) 증가해 579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 순자산 증가 폭은 미미했지만 미국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국내 채권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채권형 펀드 순자산이 비교적 많이 늘었다"면서 "여기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자금 유입세도 계속돼 전체 펀드 순자산이 9조 원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형별로 보면 채권형 펀드의 순자산이 전월 말보다 2조 9000억 원

(2.7%) 증가한 10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이 10조 7000억 원으로 3조 원(3.1%) 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지속으로 국내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순유입됐다. 반면 해외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7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1.7%) 줄었다.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86조 8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 원(0.6%) 늘어났다. 이 중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65조 1000억 원으로 4000억 원(0.7%) 감소했으나 해외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21조 7000억 원

로 9000억 원(4.5%) 늘었다.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79조 8000억 원으로 1조 7000억 원(2.2%) 증가했다. 특별자산 펀드 순자산은 1조 원(1.4%) 늘어 71조 9000억 원을 기록했고, 혼합자산 펀드 순자산도 1조 6000억 원(6.6%) 늘어나 25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재간접펀드 순자산과 파생상품펀드 순자산도 각각 1조 원(3.8%), 4000억 원(0.8%) 증가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은 106조 원으로 전달 대비 900억 원(0.1%) 줄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KRX 300 섹터지수별 구성 *3월 8일 기준

섹터지수	전체		유가증권		코스닥	
	종목수	시총(조 원)*	종목수	시총비중(%)	종목수	시총비중(%)
KRX 300 커뮤니케이션서비스	21	69	12	90.7	9	9.3
KRX 300 소재	35	53	29	92.7	6	7.3
KRX 300 필수소비재	31	52	28	97.5	3	2.5

거래소, KRX300에 섹터지수 3종 추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통합 대표지수 KRX300에 섹터지수 3종이 추가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섹터분류기준(GICS)에 따라 KRX 300지수에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필수소비재 섹터지수가 18일 신규 출시된다. KRX300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지수다.

KRX300 섹터지수는 KRX300 구성종목 중 사업 분야가 유사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산업별 섹터의 지표 및 다양한 섹터투자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섹터지수별 구성종목은 각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1종목, 소재 35종목, 필수소비재 31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신규 출시로 KRX300지수는 정보 기술, 금융, 산업재, 자유소비재, 헬스케

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필수소비재 등 총 8개의 섹터별 지수를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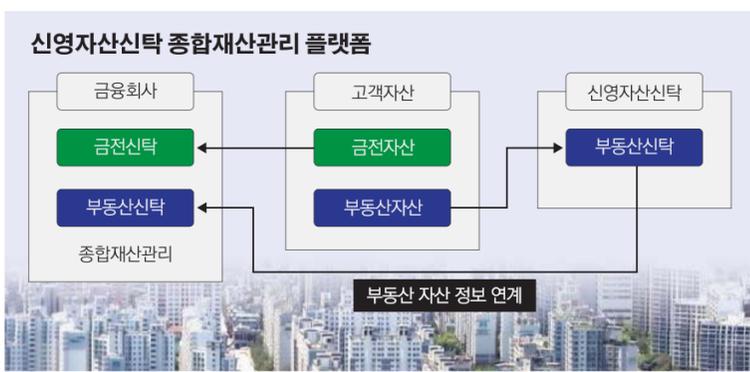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섹터지수는 대표 지수인 KRX300을 운용하면서 섹터별 선택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경기 변동에 맞춰 투자하는 전략, 수익률이 높은 섹터를 선별 투자하는 전략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8개의 KRX300 섹터지수가 완비되면서 KRX300의 상품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해 EMP(ETF·ETN)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KRX300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과 더불어 대표지수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손잡고 부동산금융 역량 강화

기존 IB사업부 진행 부동산금융
개발·투자 등 전 과정 확장 기대



유진투자증권이 신영증권과 손잡고 부동산신탁 시장에 진출한다. 리테일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은행(IB)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부동산신탁업 진출로 부동산금융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부동산 관리업체인 젠스타와 메이트플러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영증권이 50%대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유진투자증권은 30%대, 부동산서비스 업체 젠스타와 메이트플러스는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신영자산신탁은 본인가 신청 준비를 위해 인력 구성과 역할 배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면, 신청 내용을 심사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과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대형 중심의 시장에서 중형 부동산을 적극 개발하고, 노후·낙후지역의 재생과 개발 프로젝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부동산신탁사 진출로 인한 부동산 투자 사업군 다각화가 부동산금융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IB 사업부를 통해 진행하던 부동산금융을 개발부터 투자, 분양 등 전 과정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말 IB본부 산하에 기업금융실, IPO실, PF1실, PF2실을 신

설하고 PF1실에 구조화상품팀과 부동산금융팀을 배치했다.

또 1월 강진순 유진투자증권 전 부사장이 유진저축은행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IB부문 구조화상품·부동산 금융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신탁사 진출이 유진저축은행과의 시너지로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쪽에서 강점을 보였던 만큼 부동산신탁사 진출로 인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토지 정비사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유안타증권 신임 대표에 대만 출신 귀명정

유안타증권은 신임 대표에 귀명정(郭明正·사진) 유안타 파이낸셜홀딩스 기업금융 총괄임원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귀명정 대표 내정자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귀명정 대표 내정자는 유안타증권 본사가 있는 대만 출신으로 유안타증권 대만(YST) 전무, 유안타증권 아시아파이낸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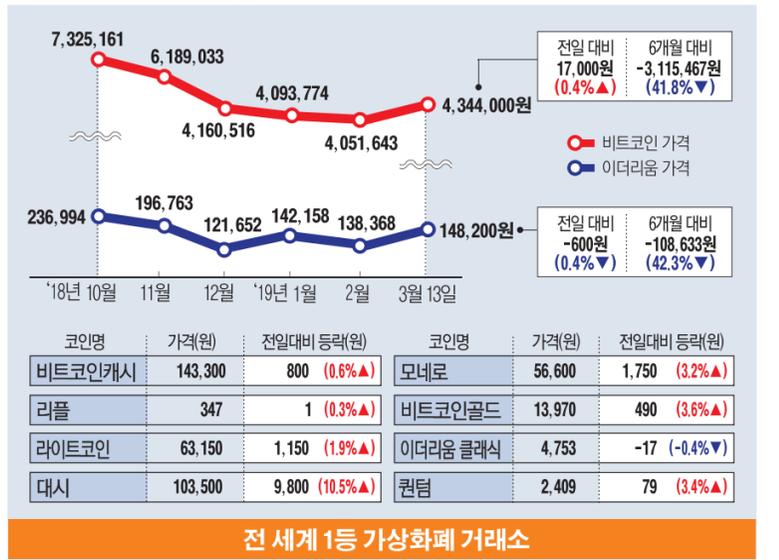
서비스(YSAF) 이사를 역임했다. 앞으로 유안타증권은 서명석 대표와 귀명정 대표 내정자가 공동대표로서 함께 경영하게 된다.

그동안 대만 쪽 대표를 맡아온 황웨이정 대표는 대만 유안타증권으로 복귀한다.

고종민 기자 jim@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3월 13일 17:00, KST)



에스엔피월드, 연매출 웃도는 현금실탄 확보 블러썸엔터 인수하나

1월 500억 이어 500억 CB 발행
운영자금 외 주식취득 사용 예정
블러썸 대표 사내이사 선임 추진
M&A 기대감 커지며 주가 상승



화장품 부자재 전문기업 에스엔피월드가 연간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현금 실탄을 확보하면서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스엔피월드는 케이엘파트너스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2회차) 발행을 결정했다. 표면과 만기 이자율이 각각 4%, 5%로, 전환가액은 1만5650원, 전환청구 기간은 2020년 5월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다. 조달 자금 중 100억 원은 경상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400억 원은 타 법인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도 피앤씨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CB(1회차)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해당 사채는 만기 이자율이 5%이며 전환가액은 4965원, 청구기간은 2020년 1월 9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다. 2회차 CB와 전환가액에서 차이가 큰 이유는 에스엔피월드 주가가 최근 4개월 사이에 5배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에스엔피월드는 화장품 필수 부자재인 메이크업 스펀지, 퍼프, 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2017년 9월 코스닥시장에 진입했다. 고객사로는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씨앤씨엔, HCT, 아이피어리스 등이 있으며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도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작년까지 매년 200억 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 73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전환했다.

M&A 기대감도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 시장에서는 에스엔피월드의 블러썸엔터에 인턴트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인수나 사업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에스엔피월드는 수권의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을 의안으로 올려둔 상태인데 이중 상당수가 블러썸엔터와 연관돼 있다.

우선 사내이사 선임 후보로 오른 지영주·주방숙 씨는 블러썸엔터엔터테인먼트의 공동 대표이사다. 또 화장품 사업 외에 △영화·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유통 △지식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 등 엔터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 결정적으로 이 회사는 사명을 '블러썸앤씨(Blossom Media & Cosmetics Co., Ltd.)'로 변경할 예정이다. 블러썸엔터는 배우 송중기와 박보검, 차태현 등의 소속사로 카카오의 인수 대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M&A 건과 관련해 결정되거나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주총 통과는 물론, 인수와 관련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엔디엠, 국회의사당서 자율주행차 시연

이해찬·유인태 등 10여 명 참석
“승차감·안전성 놀라운 수준”



에스모는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 엔디엠의 자체 제작 자율주행차량이 12일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용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등 10여 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엔디엠 관계자는 “시연회는 국내 자율주행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 시연·시승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자율주행기술·제품전시 및 시승식’ 행사에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경수 교수가 이끄는 ‘스마트 모빌리티 랩(SML)’과 함께 센서 기반 차량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엔디엠은 자체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에 레이더(Rader), 라이다(LiDAR), 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을 부착해 차량과 시설물 간의 거리, 차량 주변의 공간 정보, 현재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차량의 주행 모션과 주행 경로를 생성한다.

이날 엔디엠의 자율주행차를 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승차감과 안

전성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수준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 상용화 등 선도에 나가야 할 사업이 많은 만큼 향후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엔디엠은 국내외 자율주행 전문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대거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 우모(UMO)와 양해각서를 체결, 정밀지도 전문기업 카메라(CAMERA)의 3차원(3D) 맵핑 기술과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해온 아폴로(Apollo)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엔디엠이 보유한 인적 인프라와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해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며 “향후 국내 자율주행차 생활화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종민 기자 kjm@

“현대重 실린더라이너 생산 중단... 수혜 기대”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케이프



대형 선박용 엔진 부품업체 케이프가 증권업과 조선업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실적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케이프의 자회사다.

-주력 제품과 경쟁력은?

“지난 30여 년간 실린더라이너 한 가지 제품만 생산하면서 축적된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엔진 양대 기술사(MAN, Win-GD) 승인을 받았다. 특히 생산설비는 소재 생산에서부터 가공, 검사, 포장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스톱 공정을 구축하고 있어, 소재 생산과 가공 생산이 분리된 경쟁업체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고 긴급 대응에도 용이하다. 또 국내 3대 메이저 엔진빌더를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까지 신조선에 필요한 실린더라이너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A/S 시장에도 당사 제품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조선업황과 회사 실적 전망은?

“케이프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각각 30.2%, 200%였다. 올해 역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조선 시장은 엔진 발주량으로 볼 때 전년 대비 약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의 실적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다. 그 이유는 당사와 비슷한 규모의 실린더라이너 생산업체인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생산해 오던 물량을 올해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외주로 전환하면서 당사의 신조선 생산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의 기업공개계획은?

“2018년 4월 하나금융투자와의 상장주관 계약을 맺었으며, 회사의 가치를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즉시 할 수 있도록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증권사 가치가 저평가받는 상황이므로 시기를 확정할 순 없다.”

-올해 사업 계획은?

“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장비 자동 정상화와 소재 공장 라인 조정 등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외 주요 중공업, 조선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의 수주를 받을 계획이다. A/S 시장에서도 고객사에 대한 꾸준한 네트워크 관리로 증가하는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의 경우 사업 규모 확대와 같은 공격적 경영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내실을 다지는 한 해를 보낼 계획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투자(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자동,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매물 클릭하니 사진 없고 중개사 얼굴만 소비자 등돌린 '한방'

〈중개사협 부동산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야심 차게 내놨던 부동산거래 앱 '한방'이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13일 앱(App)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1월 부동산 앱 실사용 순위는 1위가 직방, 2위 다방, 3위 네이버부동산, 4위 호갱노노, 5위 아파트투유(APT2you), 6위 아파트실거래가(아실), 7위 KB부동산리브온(Liiv ON), 8위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9위 LH임대분양정보, 10위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등으

는 9위(전체 순위 1616위)로 내려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톱10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업계는 이용자가 찾지 않으니 중개사들에게도 외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한방에 걸려있는 매물에는 매물 사진이 없고 중개사 얼굴 또는 중개사무소 사진만 볼 수 있다. 직방이나 다방과는 확연히 다른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다. 구글 플레이에는 이를 포함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 리뷰가 가득 달려 있다.

올 1월 앱 실사용 '톱10'서 자취 감춰 이용 불편한 문제 개선...내달 리뉴얼 플랫폼 개선 컨설팅...내년 업그레이드

협회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한방의 소비자 이용 불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먼

로 나타냈다.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던 한방은 순위에서 사라졌다.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2016년 출시한 부동산거래 앱이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한방은 부동산 앱 실사용 순위 7위(전체 순위 1201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에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중개사로 부터 광고료를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문제 의식이 들끓었다. 이 시기 협회는 소속 중개사들에게 다른 플랫폼은 보이콧하고 한방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하지만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방 모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8년 7월 한방의 부동산 앱 순위

는 9위(전체 순위 1616위)로 내려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톱10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업계는 이용자가 찾지 않으니 중개사들에게도 외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한방에 걸려있는 매물에는 매물 사진이 없고 중개사 얼굴 또는 중개사무소 사진만 볼 수 있다. 직방이나 다방과는 확연히 다른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다. 구글 플레이에는 이를 포함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 리뷰가 가득 달려 있다.

협회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한방의 소비자 이용 불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먼저 이달 말까지 그간 지적받아왔던 소비자 이용 불편 문제를 개선하고 내달 리뉴얼한 한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며 "내부에서 한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과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한방'을 새로 선보인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는 '한방이 먹힐지'에 여전히 물음표를 던진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중개사 네트워크에만 기대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재입찰 왜?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입찰공고가 나왔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2일 재건축단지인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잔여분에 대한 일괄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규모는 근린상가 전체 4만9985.36㎡ 가운데 절반 수준인 2만1086.27㎡다. 나머지는 조합원 물량으로, 입찰은 일반 물량이다. 근린상가는 총 5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입찰 대상은 5개소, 165개 점포다. 조합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입찰 공고를 냈다. 유찰이 아니라 조합이 입찰 공고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 조합원

재건축조합 지난달 이어 두번째 입찰

배점 등 문제로 첫번째 공고 취소

5개소 165개 점포...26일 계약 체결

이 상가 일반분양과 입찰공고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입찰과 관련한 배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입찰 공고를 더 명확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모아 첫 번째 공고를 취소했다. 조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서에 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다시 하자는 의견이 이사회에서 모여 이번에 재공고

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이다. 공동입찰은 할 수 없다. 참가자격은 보증금인 현금 100억 원을 이달 18일 현장설명회 전까지 내야 얻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18일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이달 22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일은 이달 26일이다.

한편, 송파헬리오시티는 9510가구가 들어서서 대규모 단지다. 이달 초까지 입주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8일부터는 행복주택 1401가구 입주도 시작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6호선 연장' 서울 양원지구 분양 본격화

쾌적한 자연환경에 역세권 각종 분양가 상한제로 실수요자 관심

쾌적한 자연환경과 6호선 연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울 양원지구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원지구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에 예상된다.

서울 양원지구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대 34만5291㎡ 면적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다. '양원 숲길 도시'로 명명될 만큼 주변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실제 이곳은 수십 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녹지가 잘 보존돼 있고, 주변에 중랑캠핑숲, 봉화산, 구릉산, 불암산 등이 자리해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특히 경춘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을 사이에 둔 입지적 장점이 눈에 띈다. 이 중 신내역은 지하철 6호선이 올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



고,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퀴드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개통되면 서울양원지구는 서울 중심가로의 접근성이 더욱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내 I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랑 IC를 통해서도 세종포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엔터시스, 이노시티, 모다아울렛 등과 같은 대형쇼핑몰 등이 인근에 위치했다.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의료시설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좋다. 여기에 양원지구는 맞닿은 신내1·2·3지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창립 30주년' 호반그룹 젊고 역동적 CI·BI 선포

브랜드 '호반써밋·베르디움' 리뉴얼



창립 30주년을 맞은 호반그룹이 그룹 통합CI(Corporate Identity)와 건설계 열주목 브랜드 '호반써밋', '베르디움'의 새로운 디자인을 13일 공개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CI에는 소비자의 생활과 공간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젊고 역동적인 의지를 담았다"며 "또한 고객들의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반써밋', '베르디움' 브랜드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의 새로운 CI는 호반의 심벌마크인 불록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록 형태 안에 있던 호반을 밖으로 꺼내 심플하게 바꿨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존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oT 센서 5만 개 설치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박원순 시장, 6대 분야 1.4조 투입 도시 움직임·시민 생활 데이터화 DMC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7월 무인셔틀 시범 주행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좌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등 6대 분야 총 18개 전략 과제에 추진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 5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시민행동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누적된 도시 행정 데이터에 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서울시는 5만 개의 IoT 센서가 수집하는 도시 데이터와 시가 보유 중인 행정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저장·분석·활용하는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내년 구축한다. 5만 개 센서는 미세먼지, 소음 등 도시 현상과 유동인구, 차량 이동 등 시민 행동 데이터를 모으게 된다. 조도 센서로 확보된 야간 빛 데이터는 밤길 안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며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데이터는 그늘막이나 빙판길 열선 설치 위치를 정하는 데 쓰인다.

금융·유통·포털·통신 등 민간 빅데이터와도 융·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건축물대장, 부동산 실거래가, 생활 편의시설 정보 등)과 금융기관(담보 대출 데이터 등)이 각각 보유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서울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단위: 억 원) '2022년까지 총 1조4000억 원 투자

분야	주요 정책	분야별 총 투자 금액
교통	IoT (사물인터넷) 활용 공유주차 시스템 확대 -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공간 확인 · 예약 · 요금결제	2421
안전	지능형 CCTV 그물망 구축 - 싸움·방화 등 자동 인식해 실시간 파악	1556
환경	버추얼 서울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 - 도시 환경을 3D로 구현해 도시 변화 예측	6212
복지	홀몸어르신 실시간 돌봄 서비스 - 전력 사용량을 IoT 플러그로 감지해 위험 상황 감지	307
경제	스마트서울 협치 시스템 개설 -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시민·기업·전문가 참여	3442
행정	IoT 기반 도시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5만 개 IoT 센서 설치, 시민·기업에 공공 데이터 개방	787

융합해 ‘소형 공동주택 매매시세 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어 시세 파악이 어려운 소형 공동주택의 시세를 제공해 시장 가격의 투명성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스마트 교통’을 위해 2421억 원을 투입한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DMC)에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올해 V2X(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통신망과 관제 센터를 구축하고 7월에는 무인셔틀 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또 IoT 기술로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IoT 공유 주차 시스템’이 올해 5000면에서 2022년 3000면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이 탑재돼 수요를 예측하는 ‘AI 택시’가 도입된다.

도시 관리도 더 스마트해진다. 지형과 건물, 시설물 등 서울 전역의 도시 환경을 가상공간에 3D로 구현해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을 구축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국세청, 대기업 오너 경영권 편법 승계 집중 점검

불공정·탈세 여부 철저히 조사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력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가 다뤄졌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

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어던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60% 수준인 정기조사 비중을 올해 6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도로표지판에 안내 그림을

눈이 안 좋은 운전자 등을 위해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가 22cm에서 24cm로 커진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운영과장(오른쪽)이 세계문화유산 그림을 담은 도로표지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할뉴스

다중대표·집단소송제 상법 개정 적극 추진

법무부, 올해 주요 업무 발표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강화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가 1만 명이 넘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제소물 책임,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 범죄,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및 비윤적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피해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장호진 기자 js62@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 계획 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

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 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3 3월호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이클 차려입다

Elegance

COVERSTORY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이클 차려입다

PART1. 섹시가 있는 패션 - 시니어 시크의 스타일
PART2. 체형을 알고 패션을 선택하면, 스타일 백전백승
PART3.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옷장 정리 꿀팁
PART4. 내가 바로 시니어 패션 리더 - 시니어 모델 소은영, 핫한 모델 김철두
PART5. 패션 핫 아이템 '항수' - 스타일의 완성, 항수를 입다
PART6. 해외 시니어숍 꿀팁 - 시니어를 사로잡을 세계의 패션 브랜드
PART7. 중년기자들의 패션 단상

월레이징 투석 시작하면 폐가망신은 멍! "만성콩팥병에 절망 마세요"

때론 유명인사의 죽음에, 사인이 된 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프래디 마이클리의 에이즈나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이 대표적이다. 중장년들은 신부전증으로 유명을 달린 가수 배호를 떠올린다. 비반 병원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인이 전해지면서 이 병은 집 기둥뿌리 뽑아 병원을 대야 할 만큼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왔다. 하지만 예외는 혈액투석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1966년 사망했는데, 국내에 인공신장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수도권병원에서였다. 일반인이 쉽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문의들 또한 이런 선입견에 반기를 든다. 신장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먹고 입고 잘 수 있으면 끝 더 이상 무슨 필요?

삶이 즐거운 건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다.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쉽지 않다.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대충 살기 십상이다. 이럴 때 살아간 위대한 곡예사가 가깝다. 곡예 역시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한 번 태어난 인생, 심란한 곡예보다는 평온한 삶으로 살을 즐기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보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살건, 뭐라 하건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내 지향대로 산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생의 '남'에 다들 있을 때, 우리는 다 다르다. 성공한 대학교 교수 연애회

소통과 공감대를 위해 다시 청춘을 느껴하다. 800여명의 아이를 조장현, 송시현, 이범하

질투 7인 예술가끼리 마트장이 같은 예술촌 전라 작가 진공재, 권기호 태운 인생을 말하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근대건축물의 보고, '인천개항누리길'을 걷다

전철 1호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으로 간다. 전철 안에서 시간여행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인천역 앞에 있는 화려한 퍼머를 통과하면, 100여년 앞 인천 개항 시절의 풍경이 펼쳐지는 상상 말이다. 실제로 하루 2대에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머니테크 집중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장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발상
올해에도 사할음식
보리누룻지와 봄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남호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탈라국
왕자님께



‘한국 역도의 전설’ 원신희

“체중의 두 배 이상 ‘인간 한계’ 들어올리는 순간 짜릿”

짧지만 강렬하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두 배, 심지어는 세 배가 넘는 무게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남짓. ‘무거움’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들어 올린다. 1974년 테헤란아시안게임 역도 라이트급에 출전해 용상, 인상, 합계 전 종목을 석권한 원신희(74)를 만났다.

“시골에 바벨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빈통에 모래랑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돌역기’밖에 없었어요.”

또래 중에서 가장 힘이 췌던 그는 동네에서 돌역기를 들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말해 주는 어른들의 칭찬을 듣는 재미에 역도를 시작하게 됐다. 대전공업고등학교 역도부에 진학한 그는 1965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추상(125kg)과 합계(392.5kg)에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인상(120kg)에선 주니어 세계 타이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았다. 1966년부터 12년간 역도 국가대표로 활약한 그는 “손가락이 좀 더 길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짧아가지고 … 그래도 한의사이셨던 아버님이 맡아 주신 인삼 덕을 많이 봤어요” 하며 웃었다.

“아버님이 항상 술, 담배, 여자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워낙 이성 관계에 둔해서… 연애도 안 하고 중매결혼으로 했죠. 아버님의 세뇌(?) 교육 덕분에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웃음)”

원신희는 1966년에 설립된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다.

“태릉선수촌이 설립된 이후 한국의 스포츠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 스포츠과학이 접목되면서 효과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엔 헝그리 정신이 있었죠.”

스쿼트 훈련을 하고 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오르막길을 뒤로 걸으며 올라갔다.

“
어릴 적부터 돌역기 번쩍번쩍
어른들 칭찬 듣는 재미에 시작
언제나 ‘술·담배·여자 조심’
아버지 세뇌에 운동만 했죠

암흑 같던 무릎부상 이겨내고
1974년 테헤란AG서 ‘金金金’
메달은 하늘이 주는 선물
나를 이길 수 있는 몸 다져야



선수 시절의 원신희.



“켜켜이 쌓인 굳은살에 손바닥이 마치 발바닥 같았다”던 원신희의 손은 40여 년 세월을 증명하듯 굳은살 대신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벨에 쓸러 손이 찢어지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 상처는 굳은살로 메워졌다. 마치 발바닥 같았다고 말하는 그의 손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굳은살 대신 흘러간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주름이 자리 잡았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죠. 힘들어도 참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 짝 물고 했어요. 새로운 기록을 내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역도는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무게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역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1978년 은퇴를 선언한 원신희는 1983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역도 선수들을 육성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욕심을 버려라’다.

“기술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이길 때 비로소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역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 무거운 무게를 들겠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요. 그전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몸, 기초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메달 3관왕의 영광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1974년 테헤란아시안게임을 꼽았다. 라이트급에

대회도 나눴죠. 북한 선수가 밝은 표정을 지으면 남북관계가 좋았던 거고, 서로 판청 피우고 만나주지도 않을 땐 남북관계가 냉랭한 시절이었죠. (웃음)”

우리나라는 금메달 한 개 차이로 북한을 누르고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다. 금메달 3개를 보낸 원신희가 귀국하자 국민들은 열띤 환호를 보냈다.

“카퍼레이드는 물론이고 지방까지 환영식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제 고향에선 사물패까지 동원해서 잔치를 열어줬죠.”

메달은 하늘이 주는 선물

그에게 테헤란아시안게임에서 탄 금메달이 더욱 값진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부상을 이겨내고 거둔 우승이기 때문이다. 1967년 무릎이 탈골되는 부상을 당한 그는 선수생활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역도에 추상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무릎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는 기록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까지 고려했죠. 그런데 1972년 뮌헨올림픽 이후부터 추상 종목을 폐지하더라고요.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는 메달을 따는 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그가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 추상 종목이 폐지된 것처럼 말이다.

“메달은 하늘이 주는 선물 같아요. 노력한다고 다 목에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한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실력의 상대에게 패했을 땐 결코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지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우승자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법이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면 좋겠어요.”

글/정지은 기자 jungie94@

사진/오병돈 작가 obdlife@gmail.com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역 서점에겐 생명줄”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대형서점과 ‘상생협약’ 체결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인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입니다. 지역과 소상공인에겐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 회장은 14일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서점과 ‘서점 상생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역 서점들이 1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이유가 어떤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강조했다.

대형·온라인 서점, 자본력 앞세워
중고서점 형식 골목상권 진출
학교 앞 서점까지 위협 받았지만
새로운 상생협약으로 한숨 돌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이 26일 서울 구로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근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위치한 한국서련에서 만난 박 회장은 지역 서점의 생존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그는 최근 화두가 됐던 서점의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신청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인수, 추가 사업 개시·확장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면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법이 있지만, 권장 사항에 지나지 않아요. 수시로 신고했다가 풀어졌다가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고 자유방임주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 서점들은 나 혼자 가슴 치다가 문을 닫는 거죠.”

2월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대형·온라인 서점들의 오프라인 확장을 막고, 동네 서점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사라졌다. 실제 동네

서점은 2007년 3257곳에서 10년 뒤인 2017년에는 2050곳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한국서련을 비롯한 서점 업계는 교보·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대형 서점 외에도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이 생겨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중고 서점 형식으로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고 서점이 아닌 신간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어제 나온 책이 중고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에 체결되는 대형 서점과의 상생협약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박 회장은 “출간된 지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책은 중고

서점에 내놓지 않도록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다행이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서점 생태계 보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용, 어려운 출판계·서점계와의 상생 노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서점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서점업에 몸담고 있는 박 회장은 동네 서점의 쇠퇴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본 인물이기도 하다. 7년째 한국서련 회장을 맡고 있다.

“서점은 정가제 시행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전 정가제는 거의 ‘할인법’이 나뉘지 않았어요. 신간이 반값으로 할인돼 판매되다 보니 영세한 지역 서점은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온

라인 서점이 생겨나면서 지역 서점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박리다매’로 책이 판매됐고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책 수요가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 출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1조3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오프라인 서점 1802곳의 매출은 1조3842억 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 점유율부터 압도적이예요. 대형 체인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 약 67.8%를 차지해요. 나머지 30% 중에서도 중형 서점이 20%를 가져가면, 학교 앞 작은 서점들은 말 그대로 10%의 영역만을 나눠가는 거예요. 그것마저 대기업이 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10퍼센트도 못 봐주겠다고 하는

전주서 30년 넘게 서점 운영
동네서점 쇠퇴과정 직접 봐왔죠
우리도 변해야 산다...

‘원스톱 배달 시스템’ 도입 추진

건 어떤 명분이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점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만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 서점에 있는 책을 소비자가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역 서점이 먼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골목 상권이 죽으면, 소상공인은 죽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사회적 간접비용도 많이 들겠죠. 70%가 소상공인인 우리 사회인데, 그들이 다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워런 버핏 라이프
대니얼 피켓 외 지음/이건 옮김/에프엔미디어/2만8000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노하우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핏에게 직접 듣는 것’이다.

가능한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매를 통해 그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열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37억 원(2019년 낙찰금액 기준)이 든다. 버크셔 주총 Q&A는 2016년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진행된 Q&A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녹음이나 녹화 장비 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방법이 생겼다. 버핏과 그의 평생 파트너 찰리 멩거가 함께 진행하는 버크셔 주총 질의 응답 내용을 모두 기록한 책이 나왔다.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두 저자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버크셔 주총에 매년 참석해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질의 응답을 꼼꼼하게 받아 적어 정리했다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
유현준 지음/와이즈베리/1만5800원

내가 태어난 곳, 찾기를 한 곳, 기분이 좋거나 슬플 때 찾는 곳, 출퇴근길 매일 통과하는 다리, 하늘과 먼 산, 식탁...

모두에겐 각자의 도시가 있다. ‘힙’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도시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애뜻하다. ‘힙플레이스’나 맛집을 찾아 도시를 소비하는 루트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과 연결된, 자신에게만 특별한 도시를 발견해보자. 삶의 터전에 대한 사랑은 곧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건축가인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삶과 함께한 사적인 공간 121곳에 대한 단상을 풀어냈다. 연애하기 좋은 공간, 도시 속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 등을 저자의 인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있게 풀어낸다.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광고심의필 : 2018-1448-004400



동성 여행갈때, 정로환!

느닷없는 배탈, 설사로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는 없죠?
잊지마세요~ 여행갈때 동성 정로환 챙기기

배탈, 설사엔 동성제약 정로환이 좋습니다

동성제약 정로환은 위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생약성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제로 설사, 식체, 묽은 변, 토사에 효능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로환 당의정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정제 형태로 복용이 간편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민 정장제, 동성 정로환
이제 지긋지긋한 배탈, 설사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동성정로환

동성정로환(120환, 500환) / 동성정로환당의정(48정)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외감법 강화로 회계 관련 분쟁 늘 것”

‘회계규제팀 신설’ 범무법인 지평 구상수 공인회계사

팀별로 수행하던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효율적 대응

“외감법이 강화되면서 회계 규제 분야에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무법인 지평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올해 초 회계규제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회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주체 사이에서 관련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계규제팀 신설에 앞장선 지평의 구상수(45·공인회계사시험 35회·사진) 공인회계사는 “분식회계만 보더라도 처음엔 자문 단계에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민·형사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기업 사이, 감독 당국과 기업, 회계법인과 기업, 주주와 회사 등 다양한 주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분쟁이 많아지면 회사에 투자한 주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감법 개정으로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강화됐다. 또 내

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의 이사,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의 회계 관련 책임과 의무도 한층 엄격해졌다는 평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 회계사는 “회계가 투명해지면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기업은 강화된 규제 정척 속에서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며 “법이 바뀌고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도 자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회계규제팀을 신설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평은 그간 개별 팀별로 회계 업무를 수행해왔다.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업무 및 상장유지 실질심사 등의 업무는 금융팀에서, 회계 관련 일반 자문은 회사팀에서, 분식회계 관련 형사소송은 소송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회계규제팀이 신설되면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구 회계사는 “그간 회사 내에서 회계와 관련해 방향을 설정하거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한 팀이 없



었다”며 “회계규제팀이 생기면서 연구 활동 및 마케팅 방식을 논의하고 협업 등을 조율하는 중심축이 생겼다”고 말했다.

회계규제팀은 모든 회계 업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팀 구성에 앞장서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 구 회계사 설명이다. 그는 “회계규제팀에서 모든 것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팀을 구성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도하는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김광두 “IMF 뒷북 조언 핑계로 단기대책 양산 두렵다”

페북 통해 체계적 대책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은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 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신된 채로.”

13일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이자 ‘미스터(Mr.) 쓴소리’로 불린다.

앞서 전날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소 9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고강도 부양조치를 권



고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며 “돈을 풀고, 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 쉬고 있는 사업가들, 전문가들, 정책당국자들이다.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3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박영학 원주생명농업 대표

박영학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 대표가 13일 ‘2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됐다.

박 대표는 2004년부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화학비료나 농약, 항생제 등을 쓰지 않고 쌀과 복숭아, 달걀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와 공동선별장, 제철신선반찬공장 등 시설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원주생명농업은 해마다 3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고 있다.

원주생명농업은 농촌 체험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원주생명농업이 운영하는 유기농업 교육기관인 ‘두레귀농학교’는 친환경 농업 소개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박영학 원주생명농업 대표와 그의 아내.

로 나서고 있다. 방문객이 매년 늘어 2017년에는 1000여 명이 원주생명농업을 찾았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변화·혁신 위해”... ‘업계 1위’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 퇴임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새 대표이사 황학수 총괄사장 선임 예정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한다.

권원강(사진)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13일 경기도 오산 본사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열고 경영 퇴임을 공식 선언했다.

권 회장은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을 모두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교촌은 권 회장의 퇴임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뀐다.

이날 창립기념일 기념사를 통해 권 회장

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경영 혁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교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본사 직원 및 가맹점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는 한 사람의 회장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된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퇴임 배경을 밝혔다.

권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점상, 해외건설노동자, 택시기사 등 직업을 거치다 40세에야 교촌치킨의 문을 열었다. 1991년 3월 경북 구미시에서 10평 남



지 작은 가게로 시작한 권 회장은 치열한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간장치킨 열풍을 일으키며 교촌을 연 매출 3188억 원의 업

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신임 대표이사에는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총괄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2012년 교촌 그룹경영전략본부장으로 영입된 황 대표는 2015년 교촌에프앤비에서 인적분할된 비에이지엔바이오(BHNbio) 사장을 맡은 뒤 2017년 9월 교촌에프앤비 총괄사장에 올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한국도요타, 장애인탁구협과 후원 협약...국가대표 훈련 지원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장애인 탁구 발전과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 2019년 한 해 동안 1억 원을 후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도요타는 2015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및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IPC)와 파트너십을 맺고 메인 스폰서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후원금은 국가대표 선수 약 50여 명의 국제대회 참가비용 및 훈련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도요타 사장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계에 도전해 나가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타케무라 노부유키(오른쪽) 한국도요타 사장과 조용희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이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유명인 연루 사상최대 입시비리 ‘발각’

건설업계 대표 싱어, 뇌물액수만 2500만 달러 달해

미국 사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 스캔들로 발각 뒤집혔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 있는 입시 컨설팅업체 ‘에지 칼리지&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윌리엄 싱어(왼쪽 사진)는 30년 가까이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유층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 뇌물 액수만 약 2500만 달러(약 282억 원)에 현재까지 연루된 인원만 50명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판 김주영’ 싱어는 지난 8년간 입시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미국의 유명 TV 스타, 할리우드 배우,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자녀를 스탠포드대, 예일대, UCLA,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텍사스대, 웨이크포레스트대 등 미국의 8개 명문대에 부정입학시켰다. 특히 대학에 학생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스포츠 코치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수법을 썼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 운동부 감독들은 해당 학생이 스포츠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추천했다. 입학시험 관계자들 역시 뇌물을 받고 시험 점수를 조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부모 중에는 ABC



방송 인기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오른쪽), 1990년대 TV 드라마 ‘폴 하우스’에서 레베카역을 맡은 로리 로플린, 법률회사 윌키 퍼 앤 갤러거의 공동대표 고든 캐플린 변호사, 사모펀드 TPG의 최고경영자 윌리엄 맥글라산, LA 소재 부티크 마케팅업체 대표 제인 버킹엄, 뉴욕 소재 포장업체 대표 그레고리 애벗 등 기업체 CEO들도 다수 포함됐다.

김영정 기자 0jung2@

신한생명,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



신한생명은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원들이 직접 만든 528개의 신생아 털모자를 국제야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신한생명은 아 캠페인에 7년째 참여 중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에스오일, 문화나눔 기부금 전달



에스오일은 13일 마포 본사 사옥에서 문화나눔 네트워크 ‘시루’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2000만 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선진영 에스오일 관리지원본부 전무, 표재순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 대표.

변효선 기자 hsbun@

케이투코리아, 지철중 부사장 승진

케이투코리아 그룹이 ‘K2’ 사업본부 지철중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케이투코리아 그룹은 K2를 비롯해 아이더, 살레아, 와이드앵글, 다이나믹, 케이투세이프티까지 6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백미선 기자 only@

마이리얼트립, 최형표 총괄 영입

마이리얼트립이 글로벌 항공권 가격 비교 서비스 ‘스카이스캐너’의 한국 총괄 최형표 씨를 항공 기획 총괄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형표 총괄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맥킨지앤드컴퍼니를 거쳐 2015년부터 스카이스캐너 한국 총괄을 맡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국립중앙과학관 전사연구단장 임승철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정책과장 최명철 △축산정책과장 박정훈 △농산업정책과장 박상호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임현철

- ◆한국회계기준원 ◇승진 △조사연구실장 최현덕
- ◆케이투코리아그룹 ◇승진 △K2·살레아 사업본부 △정선욱 상무 △손서희 이사 △정철우 이사 △다이아닛 사업부 △김연희 상무 △권성진 이사 △와이드앵글 사업부 △윤재명 이사 △케이투코리아 그룹 공동 △정용재 상무 △성찬영 이사 △김남철 이사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므로' 이사 개인별 활동 내역과 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사외이사 역할 증대의 좋은 방법이다. 이사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주주와 소통하면서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을 때, 기업 가치 증대라는 기대에 부응할 책임의 능력도 담보될 것이다.

“책임 (Responsibility)은 응답 (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이다. 응답은 듣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책임하다.” ‘목소리와 책임’에 대한 한 철학자의 통찰이다. 목소리와 책임은 지배구조 문제 중 이사의 역할에 화두를 던진다. 이사는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기에 주주의 목소리가 없더라도 법에서 보장된 이사 본연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항상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이사에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는 신중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견’(주의 의무)을 제시하고, 충실한 검토를 통해 지배주주와 회사, 주주 간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상충’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충실 의무)을 전제로 한다. 이사의 본질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기업에서는 회사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

래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다.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투명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권익의 최종 수호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 마련한 셈이다. 단, 법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일 뿐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지배주주나 회사와 연고가 깊거나 이해관계에 얽힌 경우, 활발한 의견 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선임뿐 아니라 운영 과정까지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2018년 기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분석을 통해 국내 대기업 집단의 독립성 사례를 살펴보자. CJ그룹의 경우 지배주주 친족 간 임금 몰아주기를 최우선으로 감독해야 할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한화그룹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해당 위원장 역할도 담당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 SK그룹은 보수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곳이 있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심의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기주총 시즌을 맞은 올해 3월에도 ‘합법적인’ 독립성 이슈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진그룹에서는 자산 재평가나 차입을 통해 자산 2조 원을 채워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하필 상근감사를 파견하겠다는 주주제안을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GS리테일은 2016년 3월까지 자사에서 근무했던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올렸다. 은퇴 후 2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최고 경영진에게 독립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재단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삼성재단은 기업 총수의 영향력하에 있어 독립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법보

다는 자율로, 회사 내부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식 강화 등 투명성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 외부 인사로 후보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풀(Pool), 평가방식을 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 만, 사외이사의 전문성 또한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해 모든 이사의 경력을 12가지 항목으로 표로 만들어 평가하는 이 유다. 해당 산업, 경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다면, 기업 가치 침해 가능성이 명확해 보이는 안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므로’ 이사 개인별 활동 내역과 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사외이사 역할 증대의 좋은 방법이다. 회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평가를 맡기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사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주주와 소통하면서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을 때, 기업 가치 증대라는 기대에 부응할 책임의 능력도 담보될 것이다.



정상조의 생각
서울대 법대 교수

https 차단은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

최근 불법 사이트 차단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은 성인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 또는 만화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이들 불법사이트는 폐쇄 또는 차단되고, 운영자들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음란물이 성인들에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은 선진국과 크게 달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안접속(https) 또는 우회접속 관련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

서, 정부의 검열이나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적인 조치라는 비판과 의혹을 받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26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본래, 보안접속 규약 ‘https’는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조각(packet)을 암호화해 이론적으로는 감청이나 사전 검열이 불가능한 보안 통신 규약이다. 방통위의 불법 사이트 차단에 관한 이번 조치는 https와 함께 따라다니는 ‘도메인 표시(SNI)’를 미리 열어 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방통위가 요청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이용자들의 SNI 조각을 미리 열어 본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자들의 방문 사이트 정보를 감청하고 심지어 반정부 사이트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방통위의 https 관련 차단 기능 강화 조치가 위법적인 감청이나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

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중국은 이용자의 방문 사이트를 모두 파악해 서부 내륙과 동부 지역 등 지역별로 맞춤형 사이트 차단을 하는 사이버 만리장성(Great Firewall)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보안접속 관련 차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에 비판적인 가짜뉴스 사이트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방통위의 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 조치가 이러한 의심과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 차단 여부의 판단과 집행절차에서도 나타난다. 며칠 전 방통위는 https 관련 차단 기능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895건의 불법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 불법 사이트라고 판단한 사이트를 KT 등 민간 업체에 차단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800여 건의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 가운데 합법적 게시물도 많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과 합법의 구별 및 판단이 행정적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이다. 불법 사이트의 폐쇄가 크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과 같은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또 하나의 후진국적 규제에 불과하다. 방통위가 https 관련 차단 기능을 강화해도,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따라서 방통위 조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의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보다는 소라넷이나 밤토키의 운영자를 처벌함으로써 비로소 불법 사이트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인터넷 이용 행위를 감시하는 후진국형 차단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실리콘밸리에서와 같은 기술혁신의 기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카를 마르크스 명언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를 해석해 오기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경제학자·정치학자. 헤겔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 급진 자유주의자. 엥겔스와 경제학 연구를 하며 집필한 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유품사관을 정립했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여 각국의 혁명에 불을 지폈다. ‘경제학비판’, ‘자본론’ 등을 남긴 그는 오늘 세상을 뒀다. 1818~1883.
☆ 고사성어 / 관측득중(寬則得衆)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동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덕목 중 하나. 원전은 논어(論語). 자장(子張)의 인(仁)에 대한 질문에 공자의 대답. “공손하면 욕보지 않고(恭), 관대하면 대중을 얻을 수 있고(寬), 신의가 있으면 남들로부터 신임을 얻고(信), 민첩하게 실천하면 많은 공을 세울 수 있고(敏), 은혜로우면 남들을 잘 쓸 수 있다(惠).”
☆ 시사상식 /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기존 비즈니스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언제,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벤처기업의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말한다. 미국 프라이스라인과 아마존이 각각 ‘역경매’와 ‘원 클릭 서비스’ 특허를 출원하면서 널리 쓰였다.
☆ 우리말 유래 / 똥똥지
원뜻은 돼지감자. 전똥대에 다는 절연체 애자(碍子)도 같은 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성질을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상황이나 이치에 맞지 않게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유머 / 미래지향적
“사람들이 맥의 아드님이 아주 미래지향적이라고들 하네요.”
엄마의 대답. “그럼요. 얼마나 매사를 내일로 잘 미룬다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노은희 유통바이오부/selly215@

미세먼지 재앙, ‘정책’으로 응답할 때

올해 들어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공개된 대한민국에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은 필수 아이템이 됐다.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여야 모두 미세먼지 대응을 두고 ‘니 탓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약속한 중국은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한 내과의사는 “호흡기, 두통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

었는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를 가볍게 보는 정부의 움직임에 ‘건강한’ 국민들은 방치된 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을 안고 있고

므로 모든 국민을 격리시켜야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만 격리시키면 되었던 과거 메르스 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 해 동안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은 1만1924명에 달한다. 미세먼지 농도를 권고치 수준

인 10 $\mu\text{g}/\text{m}^3$ 로 낮추기만 해도 조기 사망자 10명 중 7명(8539명)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폐암과 천식 환자 및 뇌혈관질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미세먼지 후유증에 관련 보험상품까지 출시됐다. 중국은 2~3년 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봄은 점점 더 짙어가는 데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이 그리워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갇힌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 당장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철학자·칼럼니스트

김정은은 총명한 지도자인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지난달 28일 끝났다. 이 회담은 최근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역사적인 것이었다. 작게는 한반도, 좀 더 크게는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진정한 평화가 그 결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이 회담의 결과는 합의가 아니라 결렬이었다. 트럼프는 나쁜 거래(bad deal)보다는 거래하지 않음(no deal)이 옳다고 하면서 결렬을 선택했다. 회담 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대와 예측을 내놓았다. 작은 거래(small deal)가 이루어질 거란 예상이 있었고, 큰 거래(big deal)가 이루어질 거란 추측도 있었다. 합의에 뒤따르는 문제점 역시 다양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담이 결렬될 수 있음을 예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한반도 주위 국가의 통치자들 역시 결렬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 결렬은 거의 모두에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게 사실이다.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다름 아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회담 전 그의 자신만한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에 서로 그가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과 맞장뜨는 답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지면서 웃음을 지었지만 회담 전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이미 온데간데없었다.

트럼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만남을 통해 그는 트럼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파악했던 것 같다.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탄핵이 거론될 만큼 궁지에 몰려 있지 않은가. 그가 작은 성과라도 거둬 국면을 전환하려는 욕심 때문에 성에 차지 않은 미끼라도 덤씩 물 거라고 김정은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작은 거래로 낙착되는 게 아닐까 염려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을 격정스럽게 쳐다봤다. 좀 거칠게 말하면, 그를 미덥지 않은, 허풍 심한 장사꾼 정도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중대 사안을 성급하게 처리해 버리고 성과를 과대 포장하거나 일삼는 그런 인물이라고.

어쨌든 결과만 놓고 평가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는 트럼프이고 패자는 김정은이다. 부인할 수 없는 성적표다.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적어도 몇 수 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김정은에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음이 명확해졌다.

왜 김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케이오 펀치와 맞먹는 패배를 맞아야 했을까? 결정적으로, 트럼프란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피(知彼)’, 즉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얼마나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단지 그 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은 간파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전반에 관해 꿰뚫고 있음을 말해 주는 자료를 정상회담 막판에 코앞에 들이대었을 때 김정은이 얼마나 놀랐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추동한 북한 핵의 가치

이런 전술적 측면 말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 이익의 계산에 관한 것이다. 모든 나라 최고 통치자들은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시한다. 심지어 순수한 문화

지향적 태도에서 배양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이런 태도의 강점은 문제 해결과 난관 돌파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만일 김정은이 남다른 학습능력을 지녔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이 최근 20~30년 사이에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풀고 체제를 과감히 개혁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리고 거기에 놓인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시시각각 변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 헤라클레이토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예전 방식에 집착해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 경직된 사고나 구태의연한 대응은, 특히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노자(老子)가 물로부터 유연성을 배워야 함을 누누이 강조한 까닭을 알 만하다.

우리말에 ‘총명(聰明)하다’라는 긍정적 평가어가 있다. 이 단어는 ‘귀가 밝고[聰] 눈이 밝다[明]’는 데서 나왔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청각과 시각 기능이 매우 좋다는 말이다. 의미가 이처럼 낮은 지평에서 생겨났지

만 지혜롭고 창의적인 견해를 잘 받아들이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것으로 추상화, 확장되었다.

권력도 공고화하고 평화 다지는 길

판단력과 학습능력, 그리고 유연성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다면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통치자의 리더십에서도 이 세 요소는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총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만일 그가 앞에서 말한 판단력과 학습능력, 그리고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시지요, 대통령님!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시설,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는 이거이 전부입니다. 이거를 몽땅 원하시는 대로 투명하게 검증받고 또 폐기하겠습시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이런저런 제재를 몽땅 풀어주시지요. 우리 공화국이 발전할 수 있게 통 크게 도와주시고요. 한꺼번에 아주 통 크게 해치워 버립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시점부터 김정은을 ‘총명한 통치자’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를 ‘총명한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은 김정은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진정한 발전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가 뿌리내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오로지 북한의 국익이라는 극히 타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결단에 따른 성과는 북한과 김정은을 가장 큰 수혜자로 만들 게 분명해 보인다.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지면서 웃음을 지었지만 회담 전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이미 온데간데없었다.

사진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 SNS 캡처

교류조차 최우선의 가치, 궁극적 지향점은 자국의 국익이다.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 역시 국익 극대화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정확한 국익 계산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유동적 측면이 작지 않다는 데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 등의 가치를 계산해 보자. 미국 대통령을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오도록 만든 추동력(‘가치’라고 해도 된다)은 바로 그 핵무기임이 분명하다. 실로 엄청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한 핵의 가치는 정상회담을 변곡점(變曲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가지 않을 도리가 없게 돼 있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북한을 계속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하다. 시간은 결코 김정은은 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판단력·학습능력·유연성 세 요소

리더십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뛰어난 학습능력이다. 역사상 지혜로운 지도자로 평판이 자자한 인물의 경우도 그런 탁월한 지혜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다. 업적이 찬란한 지도자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오류와 실패가 적지 않았다. 결국 위대한 지도자와 보통 지도자의 차이는 실패나 오류가 있고 없음으로 갈리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나 오류를 발전과 성공의 계기로 삼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

역사상의 훌륭한 지도자는, 직면한 문제와 싸우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나 지도자의 다양한 성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기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말하자면 비범한 리더십은 성장

사설

세금일자리만 늘고 고용사정 더 나빠졌다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33만4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2월 10만4000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1월(1만9000명)까지 계속 저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고용회복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용사정은 더 나빠졌다. 2월 실업자가 130만3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000명)과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3.4%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이나 났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1만7000명이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11만7000명 늘었는데, 정부의 귀농·귀어 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

인 경우가 많아 고용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5만1000명이 줄었다. 11개월째 감소세다. 금융·보험업도 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은 6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39만7000명 늘어 1982년 이후 최대였다. 이 또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든 것이다. 고용시장의 중추인 30대와 40대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늘린 일자리 말고는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응급처방일 뿐, 고용시장을 떠날 수 없다. 전망은 더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26개 응답 기업 중 46.0%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19.9%는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인력을 뽑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곳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라고 당부만 할 게 아니다. 투자 여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단의 규제 혁파 말고 달리 답이 없다.



학교(學校)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첫 달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학교에 낯설었던 신입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생활에 적응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배울 학’이라고 혼동하는 학교(學校)의 學은 「臼(질구 구)+宀(집 면)+爻(효 효)」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초기 한자인 갑골문에 보이는 ‘學’ 자의 윗부분(오늘날 통용 정자체의 臼 부분)은 뿔을 감싸고 있는 사람의 손 모양이다. 그리고 宀의 안에 들어 있는 ‘爻’는 두 획이 교차하면서 이루는 무늬 모양으로서 사실상 ‘宀’과 같은 글자이다. 그러므로 學의 본래 의미는 ‘손(臼)으로 문자 혹은 문화(爻=文)를 감싸고 있는 집(宀)’이다. 문화를 감싸 보호하며 전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문화를 전해 주는 대상은 어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집안(宀)에 ‘子’를 넣음으로서 오늘날의 ‘學’ 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학교(學校)’의 ‘校’는 ‘木(나무 목)’과 ‘交(사귌 교)’가 결합한 모습인데 ‘爻’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校’의 본래 형상은 죄를 짓고서 다리를 꼬 채 앉아 있는(交) 죄수의 손발에 나무(木)로 만든 형틀을 끼운 모습이다. 후에 의미가 확장되어 죄인을 가두어 심판하는 관청이라는 뜻이 되었고, 여기서 더 진화하여 아직 몽매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지칭하는 글자가 되었다. 學校는 처음부터 ‘몽매하고 철들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마치 죄인을 심문하듯이 시비를 따지며 엄하게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단어이다. 학교는 본래부터 모종의 제약과 제재, 심지어는 ‘구속’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단어가 가진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지나치게 자유롭다 못해 방만한 게 아닐까? 현실은 보다 더 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예 교육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아끼는 옷이라고
아껴 입을 필요 있나요

옷감이 특별해도
관리가 어려워도
입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꺼내 입어요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에어드레서를 씁니다



골드미러

삼성 에어드레서

| 옷을 넘어 라이프까지 바꾸는 진정한 의류 청정은 오직 에어드레서 뿐 |



미세먼지 필터

미세먼지 필터로 옷에서 떨어진
미세먼지를 빠르게 강력하게 잠금합니다.



냄새분해 필터

제품 내부에 남은 작은 냄새 입자까지
냄새분해 필터로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제트스팀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99.9% 살균하고,
생활주름까지 간편하게 관리합니다.



제트에어

강력한 제트에어가 인감 속 미세먼지까지
빠르게 털어냅니다.

* 99.9% 살균: 안티비스 - 코리나 99.9% 제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9% 제거, 헤르페스 바이러스 99.9% 제거 / 시험방법: 실온 건조에서 시험소용에 오염시킨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율을 2차항 - 시험 소용: 2cm x 2cm 면적 소재, 오직 소용: 10cm x 10cm 면적 소재, 시험소용: 30cm x 30cm 면적 소재, 시험소용: 30cm x 30cm 면적 소재, 시험소용: 30cm x 30cm 면적 소재 / 살균 대상군: 황색모노상구균, 대장균, 국제인증기관 KHLA 인증을 받은 저산소성 혐기성 미생물, 살균률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